

#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 돌통 난 가짜 할머니

청하이 무상사/ 2001. 12. 28.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가족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손녀는 할머니를 너무도 그리워한 나머지 죽은 할머니의 영혼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랐지요. 그래서 손녀는 저승을 볼 수 있는 한 영매(靈媒)를 찾아가 할머니의 영혼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심령술사가 한참 동안 몸을 떨고 눈을 깜빡이고 숨 가쁘게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나자 목이 쉰 듯한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안녕, 제니!” “누구시죠?” 하고 손녀가 묻자 그 목소리는 “네 할머니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니가 다시 “정말 할머니 맞아요?”라고 묻자 “그래, 나야. 제니, 네 할머니야.” 하고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던 제니는 “당신이 정말 할머니예요?”라고 다시 물었고, 그 목소리는 “그래 나야, 네 할머니가 맞다니까.”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그래, 어서 물어보렴!” 이에 손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영어로 말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 말하는 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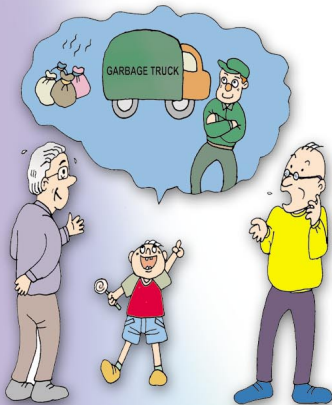
청하이 무상사/ 2001. 6. 13.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한 남자가 친구를 몇 명 데리고 와서 자기 아파트를 구경시켜 줬습니다. 그 중 한 친구가 물었지요. “저 큰 양은 대야는 뭐야?”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응, 말하는 시계야.”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 어떻게? 거긴 시계가 없잖아! 그냥 대야일 뿐인데, 왜 그걸 ‘말하는 시계’라고 하는 거지?” 그러자 그 남자가 “잘 봐!” 하더니 큰 망치를 들고 “깡!” 하고 큰 소리가 나도록 대야를 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옆집 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러워! 지금은 새벽 2시란 말이야!”

## 한 가하니까!

청하이 무상사/ 2001. 12. 28.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한 남자가 친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친구에게는 다섯 살 된 아들이 있었지요. 그가 아이에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하고 묻자 아이는 청소원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물었지요. “무슨 꿈이 그래? 왜 재는 청소원이 되고 싶어하는 거지?”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대꾸했습니다. “응, 애는 쓰레기 치우는 아저씨가 화요일에만 일한다고 생각하거든.” 그 아이는 청소원들이 1주일에 한 번만 쓰레기를 치운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국가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온 우주를 감싸 안을 수 있을 만큼 생각을 넓혀야 합니다.  
~칭하이 무상사~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39호

출판일자 : 2003. 4. 6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 앞표지 안/ 스승님의 농담

들통 난 가짜 할머니/ 말하는 시계/ 한가하니까!

### 2 다채로운 이벤트

독일/ 스웨덴/ 가나/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포모사

### 7 행사 메모

### 8 스승님 말씀

명상의 목적 - 자아를 깨닫고 내면의 기쁨을 얻는 것

### 10/ 28 골라 뽑은 수행문답

지상의 평화는 우리로부터 시작된다/  
어떻게 아침 일찍 명상하는 습관을 들일 것인가/ 아침에 명상하는 게 가장 좋다/  
기도와 명상의 차이점/ 영적 수행은 우리 행성을 진화시킨다/  
계율을 지키며 사는 것이 자신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두려움을 이기는 법/  
원수를 사랑하라/ 내면의 가치야말로 진정한 보물이다

### 13 감로범어

깨달은 사람의 인생관

### 14 수행의 길목에서

천국으로의 여정-부다페스트 센터 건립을 도우며  
신께 감사! 스승님께 감사!

### 17 신기한 감응

스승님이 달여 주신 탕약/ 어머니를 집까지 내려다주시다/  
입문자 가족이 체험한 스승님의 고귀한 안배/  
스승님의 은총으로 두 번째 생명을 얻다/  
유럽 선을 통해 어릴 적 기억이 되살아나다

### 21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우주적 신기원(新紀元)을 열어 나가자

### 26 관음사자의 여행일지

아르헨티나 홍법 보고서

### 27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포모사

### 30 사제시간의 편지

화상회의로 입은 무한한 은혜/ 당신은 우리의 어머니이자 연인입니다

### 32 이야기 세상

초창기 사제간의 이야기

### 33 동물의 유정 세계

어미 소의 사랑

### 34 당신은 모르실 거야

초세계의 치료법

### 35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비디오 테이프

### 36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두 별의 옷에 얹힌 이야기

### 38 깨달은 스승의 생활경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묘수

### 40 영화 이야기

꿈을 이룬 기쁨

### 41 매체보도

심신에 미치는 명상의 이로운

### 42 사랑의 실천

2002년 7월에서 8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활동 지출내역

### 43 감사편지

필리핀

### 44 관음 웹사이트

### 45 전세계 연락처

### 뒤표지/ 무상예술

스승님의 예술 창작품에 담긴 신성한 힘/ 해피요기



## 독일 소식

### 신실한 제자와 사랑하는 스승님과 화상회의

[함부르크] 2002년 10월 2일 한밤중, 함부르크 센터는 스승님께서 10월 6일에 이곳 동수들과 인터넷 화상회의를 하실 거란 소식을 접했다! 동수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감격하였다. 그러나 10월 3일이 독일 독립기념일이었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준비할 시간이 이틀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스승님의 안내 덕분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다. 함부르크, 베를린, 뒤셀도르프에서 도와주러 온 젊은 동수들은 준비작업을 위해 밤을 새워 함께 일하기로 했다. 그들은 비록 전문 기술자는 아니었지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 일함으로써 나중에 화상회의 연결 상태와 그들의 신실함에 대해 스승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마침내 가슴 떨리는 화상회의 시간이 되자 스승님은 독일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다정하게 말씀을 건네시며 시작하셨고, 이에 동수들은 끝없는 박수갈채로 화답했다. 사회자는 스승님과 대화를 나눌 이 귀중한 기회를 맞아 지체 없이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대부분의 질문자 동수들이 스승님과 대화하긴 처음이라서 긴장했지만 스승님의 유머스런 농담

에 긴장을 풀었으며, 잠시 후엔 인터넷을 통해 스승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스승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느꼈다. 스승님은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가 어린 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동수들의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에도 온화하고 참을성 있게 대답해 주셨다.

스승님은 또한 다른 나라 동수들에게도 질문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이메일로 질문을 받으셨다. 함부르크 센터 동수들의 질문이 끝난 후, 스승님은 다른 센터에서 보내 온 질문에도 성실히 답해 주셨는데, 이로 인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지혜를 통해 큰 이로움을 얻을 수 있었다.

## 스웨덴 소식

### 기쁨이 가득했던 스칸디나비아 선이 행사

[스톡홀름] 스톡홀름 센터 동수들은 2002년 9월 28일, 29일에 선이 행사를 개최했다. 다른 네 곳의 스웨덴 센터와 이웃 나라 동수들도 참가할 수 있었던 이번 영성 모임에는 스웨덴 먼곳에서뿐 아니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도 갈망하는 영혼들이 많이 모였다. 스웨덴 센터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수들이 7, 8시간의 장거리 여행도 불사한 채 이 세심하게 안배된 스칸디나비아 최초의 선이(禪二) 행사에 참가했다.



했다.

선행사 일정에는 스승님의 비디오 테이프와 경서를 통해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다. 동수들은 또한 스웨덴 전통 제과를 비롯해 스웨덴, 어울락, 중국, 스리랑카,

이란, 말레이시아 등지의 맛있는 요리들로 꾸며진 ‘국제 뷔페’도 즐겼다. 스톡홀름 센터는 조용하고 평온하며 원시의 아름다움이 간직된 곳에 위치해 있는데, 근처에 숲이 있어서 동수들은 한가로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긍정적이고 고양된 분위기로 인해 선행사는 큰 성공을 거뒀으며, 동수들끼리 가까워지고 영적으로도 크게 진보할 수 있었다. 스톡홀름 센터는 북유럽의 적합한 장소에서 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데 힘을 얻어 매월 마지막 주말에 정기적인 선이 행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동수들은 모두 환영하는 바이다.

## 가나 소식

### 지상에 수행의 천국을 세우다

[아크라] 스승님의 은총과 동수들의 헌신 속에 1년이 넘는 공사를 마치고 가나 센터가 이제 문을 열게 되었다. 이 중 정보센터는 스승님의 출판물을 전시해 동수들과 손님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멋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대 명상홀은 백 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멀리서 일요일 단체명상에 참석하기 위해 온 동수들을 위한 숙소도 두 칸이 준비되어 있다.

대부분의 가나 동수들은 입문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20년도 넘게 살아 있는 스승을 찾아 다녔다. 관음법문에 입문한 후 그들은 칭하이 스승님이야말로 자신들이 평생 찾아왔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제는 아름다운 센터를 세워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9월 28일, 동수들은 새로 생긴 정보센터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가나 사형사자들이 앞다투어 준비한 강연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흥미로운 질문을 많이 하였고 최고의 법문에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가나 센터는 수도인 아크라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사람들이 찾



아오기엔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동수들은 이 지역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스승님의 법문을 소개하는 한편, 좀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연락사무실을 임대하여 단체명상에 참가하고 싶어 하는 방법법 수행자와 구도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비록 지금은 가나 센터에 동수들이 많지 않지만, 가나 동수들은 머지않아 많은 갈망하는 영혼들로 명상홀이 가득 찰 것을 확신하고 있다.



백 명이 넘게 들어가는 명상홀.



멀리서 온 여행자가 묵을 수 있는 두 칸의 손님 숙소.



입문자와 손님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할 정보 센터.

## 미국 메사추세츠 소식

### 비디오 화상회의로 사제지간의 사랑을 나누다

[보스턴] 메사추세츠, 코네티컷, 로드 아일랜드의 백여 명 동수들에게 있어 2002년 9월 28일은 아름다운 가을 주말이었음은 물론 사랑하는 스승님과 함께 유익하고 수준 높은 비디오 화상회의를 가졌던 특별한 날이었다.

화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자비로운 스승님은 수행에 관한 많은 질문

에 대답해 주셨을 뿐 아니라 유쾌한 농담과 지혜로운 말씀으로 모든 이들에게 이로움을 전해 주심으로써 세계 각국의 동수들을 강하게 결속시켰다. 화상회의를 통해 수많은 동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세계 각국의 동수들과 센터를 보면서 마치 아름다운 고향, 일가를 보는 것처럼 느꼈다.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며 포근한 천국을 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날 소중한 행사에는 단체명상에 좀처럼 참석하지 않던 동수들도 참석해 다시 한 번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관음가족의 따뜻한 환영도 받으며 수행에 대한 도심(道心)을 더욱 견고히 하였다.



회의가 끝날 무렵, 보스턴의 어린 동수들이 스승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한 노래를 합창했다. 즐거운 선율이 울려 퍼지자마자 어른들도 저절로 따라 부르며 그 순간 아이처럼 천진하고 행복한 기분이 되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스승님도 함께 노래하셨고, 또한 우리를 향한 포옹도 잊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서 1시간이 넘는 화상회의는 동수들의 환호 속에 막을 내렸다.

## 캐나다 온타리오 소식

### 축복이 넘친 채식 박람회



**[토론토]** 토론토 연례 채식 박람회가 2002년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온타리오 호(湖) 기슭에 위치한 하버 프론트(Harbor Front) 센터에서 열렸다.

행사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관음법문에 관해 문의를 해 왔고, 일부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알고자 진지하게 관심을 나타냈다. 그 중 우리 부스를 방문하기 위해 일부러 박람회에 온 한 여성은 한 달 전 토론토 센터 비디오 강연회에 참석했던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아 스승님을 알게 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친구가 그날 강연회에서 방편법을 전수받고 그 결과에 매우 기뻐하며 친구들에게 주었던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읽고 나서 더욱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위하여 우리 부스를 찾아왔던 것이다.

비슷한 예로, 미국에 사는 한 여인은 버팔로에 사는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토론토에서 채식 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온타리오로 차를 몰고 왔다. 그녀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미

스승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집에서 가까운 센터까지 두 시간이 걸려 주말 방편자 명상 시간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편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한 사자가 주말 명상 시간에 참석할 수 없어 집에서 수행하면 된다면 이 단체명상 시간은 필요할 때 버팀목이 되어 주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자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다음번 비디오 강연회에 참석해 방편법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동수들은 이번 채식 박람회에 참여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면서 스승님의 일을 도울 때는 일심으로 집중해야 하며, 또한 진리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고 완벽하고 명쾌하게 전하기 위해 매일 교리 공부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2002년 채식 박람회는 토론토의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한 소중한 경험을 통해 동수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안겨 주었다.





## 호주 소식

### 스승님의 완벽한 안내

[바이런 베이] 최근 브리즈번, 시드니, 바이런 베이 동수들은 시드니와 바이런 베이 사이에 위치한 해안도시, 콥스 하버(Coffs Harbor)의 주민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동수들은 지역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면서 주민들의 따뜻한 호응을 느낄 수 있었다. 포스터를 붙인 상점 주인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열의와 흥미를 보여 강연회에도 많이 참석했는데, 그 중 일부는 입문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들은 방편법을 배우기도 했다.

강연회 포스터 붙이는 일을 맡게 된 두 사저는 자신들의 대에 포스터를 붙이는 방법을 착상해 냈는데, 이 생각은 콥스 하버처럼 보수적인 도시에서 매우 획기적인 선전방식이었다! 동수들이 그 차로 도시를 돌아다닌 덕분에 포스터가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끌었고,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어느 날 그 중 한 사저가 채식식당에 들러 밥을 먹고 있는데 한 남자가 식당에 들어와선 밖에 주차된 스승님의 포스터로 도배된 차가 누구 차냐고 물었다. 결국 그는 강연회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방편법을 전수받아 정기적으로 단체명상에 참석하고 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그 두 사저는 마지막으로 살 것이 있어 차를 세워야 했다. 놀랍게도 한 작은 상점이 그때까지 열려 있었는데, 그곳의 점원은 차에 붙여진 포스터를 알아보고는 재빨리 한 사저에게 다가와 스승님에 대해 묻고 견본책자를 공손하게 받아 들었다. 그리고 나서 사저들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당신들이 오늘 여기 온 것도 이미 정해진 일이지요.” 그 일이 있은 후 그녀는 나중에 방편법을 전수받았는데, 방편법을 배우는 동안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번에 방편법을 배운 이 사저는 스승님을 알기 전에 어떤 수행 단체에 있었다. 한번은 심령능력을 가진 그 단체의 한 여인이 말하길, 이 사저 주위에 관음보살이 있는 것이 느껴지며 또한 그녀 안에 연꽃이 심어져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가게에 두 사저가 와서 견본책자를 주었을 때 그게 ‘정해진 일’이란 걸 알았던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녀는 관음보살이 자신을 칭하이 스승님께 인도해 주었고, 또한 그 영능력자를 통해 자신이 올바른 수행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다고 생각했다.

콥스 하버 비디오 강연회가 있기 며칠 전, 한 남자가 관음법문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포스터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왔다. 그는



전날 밤 스승님이 내면의 소리에 관한 명상법을 자신에게 가르치려 온 꿈을 꾸었다. 그러다 다음날 길을 건다가 스승님의 포스터를 본 즉시 꿈속의 스승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스승님의 명상법을 배우길 원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속된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우리의 두뇌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해도 우리는 영혼의 인도를 받아 결국에는 알맞은 곳, 알맞은 시간에 스승님의 메시지를 그분의 자녀들에게 전하게 된다.

강연회와 그 후에 만난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접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스승님을 뵙기를 희망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세계 곳곳에서 흥법을 해야 할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 설령 작은 도시일지라도 해탈의 소식을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으니 말이다. 콥스 하버에서 스승님의 안내로 일어난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큰 힘을 얻었다.



## 인도네시아 소식

### 자카르타의 아름다운 아침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동수들은 스승님과 인터넷 화상회의가 2002년 10월 6일 아침에 진행될 예정이란 소식을 듣고 뿔 듯이 기뻐했다! 이날 동수들은 각자 성장을 한 모습으로 이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자카르타 센터에 일찌감치 도착했다. 동수들은 모두 스승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면서 즐거워 보였고 주위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자카르타 센터는 스승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전통 음식인 원추형의 쌀밥을 만들었다. 이 쌀밥은 보통 경축 일이나 특별한 날에 전능한 신께 올리는 최고의 감사 표현이다.

스승님에게 바쳐진 쌀밥은 조금 모습을 바꿔 세계 최대의 불가사의한 건축물 중 하나인 자바의 보로부두르 불탑을 본따 만들어졌는데, 꼭대기는



전지전능한 힘으로 모든 중생을 보살피시는 스승님에 대한 동수들의 고마움을 상징했다. 화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스승님은 인내심 있게 많은 질문에 답해 주셨고, 동수들은 무한한 축복을 받아 크게 고양되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동수들은 모두 함께 가는 곳마다 행복이 넘친다는 내용의 인도네시아 동요를 부르면서 온 세상의 어머니가 함께 계심에 매우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다.



## 필리핀 소식

### 필리핀 축제의식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다

[마닐라] 2002년 5월 5일, 잠발레스 시(市)는 피에스타 데이(Fiesta Day)를 주요 공휴일로 인정하면서 떠들썩하고 성대한 경축행사를 가졌다. 필리핀 동수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주민들에게 스승님의 견본책자와 뉴스잡지를 나눠주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견본책자를 받은 참가자들은 스

승님의 표지사진에 매혹되어 자꾸만 쳐다보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후 즉석에서 방편법을 신청했다.

필리핀에서는 채식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신실한 참가자들은 영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채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축제가 끝나고 2주가 지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채식주의자로 바뀌었으며 방편법을 배운 사람들도 생겼다.

새 방편법 수행자 중 한 사람은 처음으로 명상하던 날 평생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온갖 내면의 체함을 경험하곤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명상 시간 30십분 내내 울었다. 그녀는 스승님이 그녀를 구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을 보고 너무도 행복하고 감동해서



잠발레스 시의 Fiesta Day 동안, 스승님의 견본책자는 주민들에게 귀중한 선물이 되어 무한한 축복을 전해 주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명상 시간이 끝난 후 방편법 수행자들은 스승님에 대한 감사와 행복을 나타냈다.

마닐라 동수들은 피에스타 데이(Fiesta Day) 행사를 통해 필리핀

사람들과 자신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 포모사 소식

### 빠토우즈(八斗子) 해변 청소

[지룽]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지룽 센터는 2002년 10월 12일, 지룽시 환경보호국이 펼친 빠토우즈 장탄리 해변 청소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또한 지룽 센터가 매월 정기적으로 행하는 해변 청소에 대한 노고를 인정받아 환경보호국으로부터 특별히 표창장을 받았다.(사진 上)

여태껏 쌓아 온 경험으로 해변 청소의 전문가가 된 동수들은 환경 및 생태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동수들의 노력으로 장탄리 해변은 단 몇 시간 만에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았다.(사진 下)



(사진 上)



(사진 下)

## 행사 메모

지구에서 진행 중인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전세계 각지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흥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흥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seminar/>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minar/index.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



## 명상의 목적

### 자아를 깨닫고 내면의 기쁨을 얻는 것

침하이 무상사/ 1995. 6. 19.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481

사실 행복할 때는 명상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괴로울 때도 명상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양자간에 균형을 지키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내면에 있음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양극단을 느끼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든, 또는 누군가가 우리를 매우 사랑하더라도 때로 그들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러면 상처받지요. 우리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처가 됩니다. 심지어 자녀나 남편의 경우에도 그들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길 원한다면 우리는 노예처럼 24시간 내내 그들의 온갖 요구를 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행복해하며 우리 곁에 붙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쩌면’에 불과합니다.

때로 아이들은 자기들의 부모를 오해하거나, 혹은 부모가 항상 함께 있어 주고, 부모의 시간을 전부 자기들에게 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부모에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신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면 부모에게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론 부모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선 상대에 대한 지나친 기대, 혹은 지극히 정상적인 기대 때문에도 괴로움이 생깁니다.

사람을 만족시키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내일도 그가 똑같이, 혹은 더 많이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일은 무슨 일이 생겨 그가 괴팍스러워지거나 우울해져서 여러분과 말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텐데도 여러분은 “당신이 내게 관심이 없는데 내가 왜 당신에게 관심을 뒤야 해?” 하고 말합니다. 양쪽 모두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헤어지게 되거나 최소한 서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다시 화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어쩌면 영영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헤어지고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일들로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상처를 받기 마련이지요.

사실 우리가 내면의 행복에 진실로 의존한다면 모든 것이 갖춰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누가 와도 괜찮고 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내면은 상처 받거나 고통받지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고통이나 슬픔, 불행은 외부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무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러고는 실망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유일한 근원은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명상할 때마다 그 근원에 닿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은 항상 모두의 내면에 있는 기쁨

의 중심에 도달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스승의 힘이 있는 곳, 우주의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며, 사랑과 자비의 산실로서 사랑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진선미가 그곳에 잠재되어 있으며 여러분이 발견해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조만간에 죽을 텐데, 어디로 갈지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살아 있을 때 인간으로서 가치로운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하며 즐겁게 삶을 이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존엄성에 걸맞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온 우주에서 최고의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우리가 최고의 창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이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고귀한 삶을 살아야 하며 모든 것을 두려워하거나 어리석고 비참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내면의 보물을 갖고 있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것이 명상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즉 여러분 자신을 알고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목적이지, 스승이 그렇게 말했고 여러분이 스승에게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승의 말을 따르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명상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스승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스승은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명상하고 싶지 않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삶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통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누군가를 통제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얽매어야 합니다. 경찰이 범인을 지키기 위해 서로 수갑을 채우듯이 말입니다.

나는 그러한 지위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 여러분에게 이로운 것이며, 만약 여러분이 들었을 때 그게 논리적이고 또 이해된다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명예이고 특전이며, 그러한 비밀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생애 최고의 행운입니다.

그것은 강제적인 것도 아니고 흥정거리, 의무도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모든 고통에서 해탈시켜 줄 문을 만난 건 수천 수백만 생에서 최고의 특전이며, 최고의 행운입니다. 그러니 계속해 나가십시오. 그러기만 하면 됩니다. (대중 박수)

때로 늦게까지, 밤 12시, 새벽 1, 2시까지 일을 할 때도 나는 자기 전에 명상을 합니다. 나는 항상 나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벗어 두고 명상하고 싶습니다. 나는 결코 명상을 해선 안 된다거나 명상이 괴롭다고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요! 그것은 기쁘이고 휴식의 근원이며, 육체적으로 봐서도 힘을 재충전시킬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성불(成佛) 같은 것을 운운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하루를 명상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피곤함과 사회의 온갖 부정적인 폭격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쳤거나 이런저런 일이 생겼다고 내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명상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니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건 여러분이 치러야 할 몫입니다.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안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명상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유일한 법문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어느 누군가가 백만 달러를 주면서 스승이나 명상을 바꾸라고 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수승함을 알고 있고 거짓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이것이 자신을 위한 법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명상이 형편없어도 그것이 전적으로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아주 잘 알고 있지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해 보면, 관음법문이 유일한 길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관음법문은 모든 것의 종지부이며, 뭐라 더 논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렇긴 하지만...’ 할 것도 없이 확실히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느낌이며, 우리가 분명히 아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느낌을 안다면 그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말할 필요도 없지요.





## 지상의 평화는 우리로부터 시작된다

청하이 무상사/ 2000. 4. 27. 뉴질랜드 오클랜드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686

**질문:** 제가 이해하기로는, 관음법문은 명상으로 수행하는 것인데, 명상이 어떻게 세상을 평화롭고 조화로운 이상적인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승님:** 좋은 질문입니다. 명상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지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스스로 변하게 된다면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단지 우리 스스로 평화롭지 않기 때문이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신'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죽이고 총을 쏘고 괴롭히는 이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평화롭지 못한 것

입니다.

명상이란 목석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신과 진정으로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명상이지요. 한번 그렇게 연결되고 나면 여러분의 존재는 영원히 바뀔 것이며, 여러분은 바로 이 행성에 살아 있는 평화로운 신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평온함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여러분에게서 조언을 구하려 하며 여러분을 본받으려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은 아주 논리적이고 신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 어떻게 아침 일찍 명상하는 습관을 들일 것인가

청하이 무상사/ 2000. 4. 27. 뉴질랜드 오클랜드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686

**질문:** 낮에 명상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서 매일 명상할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스승님:** 일찍 못 일어나나요? 나도 그래요. 포근한 침대 속에 있을 때는 누구도 일어나기 싫어하지요. 하지만 우린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직업이 있다면 일어나서 출근해야 합니다. 한 달에 2천 달러를 벌기 위해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지요. 그런데 신을 위해서는 못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우선 순위를 정하십시오. 우리는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것에 익숙해집니다.

예를 들어 새벽 3시가 너무 일러서 일어날 수 없다

면, 그럼 3시에 일어나지 마세요. 평소 출근을 위해 5시에 일어난다면 첫날은 4시 40분이나 50분쯤, 그것도 아니면 4시 55분에 일어나고, 다음날이나 다음주엔 4시 50분에 일어나도록 해보세요. 스스로 습관을 들이고 자신에게 충분한 상을 주세요. “오늘 일찍 일어나면 특대 사이즈 베이글을 주겠다, 아니면 카페라떼를 한 잔 더 주겠다.”라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좋아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상을 주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 우리의 몸은 하나밖에 없는데 때로는 너무 지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계’가 계속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일합니다. 그리고서도 때로는 가족으로서 다른 일들도 돌봐야 합니다. 아내, 자식, 부모, 친구, 이웃, 친척 등을 돌봐야 하지요. 우리는 정말로 이 육신에게 너무나 힘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명상하려고 일어나지 못해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너무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천천히 훈련시키십시오. TV를 조금 덜 보고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면 일어나기가 쉬울 겁니다. 지루한 시간을 때우느라 무리하게 활동했던 그 시간을 이제는 신을 아는 데 쓰십시오. 짜임새 있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나 역시 아주 바쁩니다.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기 예쁘게 앉아 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실은 아주 바쁘고, 때로는 나 역시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알람시계를 맞춰 놔야 합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해야 하지요.

인도의 오래된 전설에는 밤새 잠자지 않는 성인이 있

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워서 자진 않았지만 앉아서 잤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대중 웃음) 우리 동수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들은 선행사에 가면 아주 멋진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온갖 자세가 다 있지요. (스승님께서 머리를 끄덕이며 조는 흉내를 내시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인도의 그 성인도 나처럼 머리가 길었는데, 그는 머리를 천장에 묶었어요. 농담이 아녜요! 결국 그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정진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머리를 천장에 묶어 놓고 졸 때마다 고생했지요. “아! 알았어, 아야!” (대중 웃음)

여러분더러 머리를 길러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를 예로 삼자면, 처음에 나는 얼음이 든 물통을 옆에 두었다가 시계가 울리면 손을 뻗어 얼음을 얼굴에 끼얹곤 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얼음이 온통 옷과 여기저기에 들어가서 얼른 침대에서 뛰쳐나와야 하지요.

여러분은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을 테니까요.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신이니까요. 신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면에는 신 이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 두뇌에 귀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컴퓨터일 뿐입니다. 마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자, 자는 게 좋은 거야.” 하지만 그것은 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신은 더 안쪽에 있습니다.

## 아침에 명상하는 게 가장 좋다

칭하이 무상사/ 2002. 4. 27. 뉴질랜드 오클랜드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686

**질문:** 스승님, 아침에 명상하는 것이 왜 중요하니까?

스승님: 명상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아침이 좋은 건 대부분 사람들이 밤새 휴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또 아침이 더 조용하기 때문이지요. 새벽 3

시부터 6시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고, 그리고 차도 다니지 않고, 소음도 없으며, 아이가 떠들거나 전화도 시끄럽게 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밤새 휴식하고 난 뒤라 마음도 고요합니다. 육체 역시 아직 활동을 다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서 보다 잘 앉아 있을



수 있고, 삼매에도 훨씬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한다면 더 좋습니다. 집에선 보다 안정되고 조용해서 마음이 더 차분해지니까요.

아침이 명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렇다고 꼭 아침에 명상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나는 언제든지 명상합니다. 버스나 차 안에서도 말입니다. 우리 동수들은 어디서든 명상하지요. 하지만 제발 운전할 때는 참아 주세요! (대중 웃음)

## 기도와 명상의 차이점

청하이 무상사/ 2000. 4. 27. 뉴질랜드 오클랜드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686

**질문:** 기도도 명상인가요?

스승님: 예, 일종의 명상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일방적인 명상입니다. “오, 하느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신에게 말하지만, 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것입니다. 명상은 상호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우리는 신에게 우리의 고통과 슬픔, 행복과 감사를 말하고, 그러면 신은 우리가 다

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신과 교통하고 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한쪽에서만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상 중에는 듣고 이해합니다. 신은 우리를 안내하고, 내면의 수천 개의 태양으로 우리 삶을 밝혀 줍니다. 또한 우리를 안팎으로 빛나고, 사랑스럽고, 지혜롭고, 재치 있으며,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 영적 수행은 우리 행성을 진화시킨다

청하이 무상사/ 2000. 4. 27. 뉴질랜드 오클랜드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686

**질문:** 저는 때로 이미 왕성한 스승들의 존재와 그들의 인도를 느끼곤 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멀리서도 인류를 도울 수 있나요?

스승님: 물론이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분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황금시대 이후 이 행성이 모두 파괴되고 얼마 안 되는 사람만이 살아 남은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요? 그때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모두들 어둠 속을 기어다니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계속 수행해 와서 해마다 이 행성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가 진보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중: 예.)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관음법문을 수행해야 한다거나 천국을 체험해야만 그걸 느낀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은 우리의 행성이 지금은 다른 자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달라졌지요. 더 즐겁고 개방적이며 매우 이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불과 몇십 년 전과 비교해도 정말 달라졌습니다. 과학 기술과 모든 것들이 아주 빠르게 그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상상이나 했나요? 이메일, 인터넷요. 와,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이 외에도 이미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 깨달은 사람의 인생관

일단 깨닫게 되면 높은 관점에서, 높은 지성으로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일도 우리가 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칭하이 무상사/ 1989. 11. 3. 미국 콜롬비아 대학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102A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그것을 응용해 우리 삶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내면으로 수행을 하지만, 그것을 외면에 응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행의 결과를 볼 때 스스로 편안함을 느낄 것이며, 또한 수행이 매우 유익하고 자신이 진보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3. 1. 31. 포모사 라이이 센터 (원문 중국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것이지, 세상 그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5. 6. 3. 포모사 시후 (원문 영어)

에고로써 일을 하면 내면의 힘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힘의 원천으로 일하기 때문이지요.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것은 그 대신 가장 위대한 힘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3. 3. 8. 싱가포르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327

소위 ‘고통’이란 것은 모두 우리가 두려워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는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즐거움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아! 고통이 오는구나!” 하고 말하고, 행복할 때도 “아! 행복이 오는구나! 난 너희 둘을 다 알고 있어. 좋은 친구야! 좋은 친구야! 오랜만이구나!”라고 한다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게 고통스럽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강렬히 반응하진 않을 겁니다. 하루종일 두뇌의 생각에만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2. 10. 31. 포모사 양명산 (원문 중국어) 비디오 테이프 No. 286

세상엔 본래부터 아무 일도 없는데도(天下本無事), 여러분 대다수는 오히려 스스로 번뇌를 자초하길 좋아합니다. 그리곤 장애로 삼아 자신의 진보를 가로막고 스스로 이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완되지 않으면 마음이 닫히고, 마음이 닫히면 행동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운명이지만, 일을 즐겁게 하느냐, 아니면 고통스럽게 하느냐는 자신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너무 긴장하고 너무 조이면, 마음이 닫히고 일이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은 원래 조금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수백 배로 부풀리는 것이지요. 그건 모두 우리가 너무 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2. 12. 23. 포모사 핑통 산티먼 국제 선철 (원문 중국어) 비디오 테이프 No. 293



# 천국으로의 여정

## - 부다페스트 센터 건립을 도우며

리키 디어맨 사형/ 영국 런던 (원문 영어)

2002년 8월 11일, 나는 세 명의 사형과 함께 15일 부터 유럽 선사(禪四)가 열리기로 예정된 새로운 센터 건설을 돕기 위해 헝가리 부다페스트행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에서 내리니 두 명의 부다페스트 연락인이 웃는 얼굴로 우리를 맞아 주었다.

공항에서 부다페스트 센터로 가는 도중에 비가 억수 같이 쏟아지고 강풍이 불어 날씨가 매우 추웠다. 차를 운전하는 헝가리 사형은 다리까지 온통 진흙투성이였지만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는 우리에게 지난 2주 동안 이 지역에 비가 계속 내려서 센터 주변의 몇몇 도로가 물에 잠겨 폐쇄되었다고 얘기해 주었다. 센터 가까이 오자 날씨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자 그 헝가리 사형은 특히나 이 지역은 홍수가 심하기 때문에 차에서 내려 조금 걸어 다른 차로 갈아타야 한다고 말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발목까지 진흙 속에 묻히고 빗줄기가 바늘처럼 얼굴을 때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진흙 길을 통과하여 다른 차까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물에 흠뻑 젖은 가방을 사형에게 건네주고 차에 올라탔다. 그런데 그 차에 앞 유리가 없어서 비가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몸은 더욱 젖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나는 몸이 흠뻑 젖어 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다음 비행기라도 타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마침내 부다페스트 센터에 들어서니 온통 젖은 데다 눈까지 진흙투성이가 된 15명의 사형과 사자들이 보였다. 그들은 더 심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었드려 도랑을 파고 축대를 일으켜 세우고 지붕을 수리하는 등등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종일관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승전군을 맞이하듯 열렬히 우리를 반

겨 주었다. 텐트를 치기 전 나는 온몸을 떨면서 작업 중인 '인간 기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정신은 매우 굳세고 단결되어 있어 정말 존경스러웠다. 그들의 강인함과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은 나는 그 순수한 헌신의 정신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몸이 물에 흠뻑 젖어 있어서 다른 젖은 옷으로 갈아입고 명상하러 갔다. 젖은 옷은 줄음에 빠지는 것을 막아 주는 좋은 방법이었다. 아침 식사 후 작업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땅을 파고, 페인트를 칠하고, 창문을 내고, 문을 다는 등의 일을



유럽 선사 기간에 구름을 뚫고 나온 햇빛이 대지와 텐트 구역 곳곳을 비추다.



스승님의 사랑을 통해 성장, 발전하고 있는 관음가족의 해피 요기들.



비가 온 후 질척해진 부다페스트 센터 주변.

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주위의 다른 사형사저들을 바라보면 그러한 생각들은 순식간에 달아나 버렸다.

저녁이 되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냉수만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30초라는 기록적인 시간 안에 샤워를 마쳤다.

그후로도 며칠 내내 양동으로 쏟아 붓듯 비가 계속 내렸고 바람도 더욱 강해졌지만, 임무를 모두 완수해 예정된 시간이 임박해서는 할 일이 조금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그 무렵엔 센터로 들어오는 길이 아주 엉망이어서 차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륜 구동차를 임대해서 약 1km 정도 떨어진 큰길에서부터 동수들과 장비를 센터로 옮겨야 했다. 어떤 사형과 내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동수들을 센터로 데려다 주기 위해 매번 왕복할 때마다 나는 이곳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센터 곳곳이 스승님의 크나큰 가피력으로 충만해졌고, 우리는 가피력 덕분에 밤새 일할 수 있었다.

8월 14일 아침, 마침내 해가 났다. 그날 내내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영국, 체코 등 유럽 각국의 사형사저를 가득 실은 승합차와 승용차, 대형 버스들이 속속 도착했다. 동수들은 이미 홍수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뜻밖에도 햇볕이 그들을 반겨 주었다! 센터에 도착하자 사형사저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태양처럼 빛났다.

부다페스트 센터 주변은 영화 세트장을 해도 좋을 만큼 3면이 해바라기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황금빛 꽃들은 바람 따라 가지런히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또 큰비가 한 차례 쏟아지고 난 후 구름을 뚫고 나온 햇살이 하늘에 무지개를 만들어 놓았다. 나는 하는 일과 삶, 종교와 인종이 각기 다른 사형사저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음식을 먹고, 앉아서 명상하거나 거닐며 야생 약초나 버섯을 따는 것을 보며 그 순간을 한껏 즐기면서 바로 지금 이곳이 '지상 천국'이 아닌가 생각했다!

이윽고 밤이 되고 반달이 이슬 위로 그 빛을 드리울 때, 나는 고개를 들어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마치 나의 내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그 순간 무언가 눈에 들어오는가 싶더니, 별뿔별이 밝은 빛을 밝히며 하늘을 가로질러 떨어졌다. 나는 이런 멋진 경험을 하게 해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텐트로 들어가 귀뚜라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다.

8월 17일 아침, 이날 저녁 스승님과 화상회의가 가까운 대학에서 개최될 것이란 소식을 들었다. 화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화면을 통해 예전과 변함없이 빛나고 매력적이며 재치가 넘치는 스승님을 뵈 수 있었다. 스승님은 모든 질문에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혜로 답변해 주셨으며, 이에 동수들은 만족감과 충족된 느낌을 받았다. 그후 우리는 부다페스트 센터로 돌아가려고 대형 버스를 탔는데,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마음이 둥실둥실 떠다녀 날아가는 듯 했다. 유럽 선사의 완벽한 결말이었다!

입문하기 전의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나는 종종 혼란과 우울함, 고통을 느끼곤 했으며 이해력도 부족했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지혜와 지식, 내면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변화는 4년 전 내 생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칭하이 스승님을 만나고부터 시작되었다. 스승님 덕분에 나는 용감하고 성실하며 정직하면서도 도덕적인 사형사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걷고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정한 '무아의 봉사'를 보여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 신께 감사를! 스승님께 감사를!

메리 아지 사저/ 코스타리카 (원문 스페인어)

입문하기 전 나는 살아가면서 늘 신의 축복에 감사드렸다. 화목한 가정과 좋은 친구들, 집, 직장, 살아가는 데 충분한 돈, 무엇보다도 신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을 주신 데 감사드렸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상생활을 하고, 잠이 들 때면 늘 뭔가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했었다.

아주 중요한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꼭 기억해 내야 할 뭔가가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신이 나의 갈망에 응답해 주실까 싶어 지칠 때까지 기도도 해보고 때로는 꿈속에서 울기도 하며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소외된 느낌이 드는지 이해해 보려고도 했다.

나는 나 자신이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어진 것도 많은데 어떻게 또 무엇을 원한단 말인가? 나는 남들이 겨우 꿈꾸기만 하는 많은 것을 갖고 즐기고 있었으며, 특히 나를 몹시 사랑하는 남편도 있었다. 그런데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허전했다. 온갖 책을 읽고, 온갖 종교단체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어 봤지만 구하는 해답은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인도하고 유년기부터 계속된 나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실 누군가를 보내 달라고 신께 간절히 청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삶은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스승님은 그 강연에서 채식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도 나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날부터 채식을 하게 되었다. 다음날엔 웬지 모르게 '칭하이 무상사'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서 강연이 끝난 다음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스승님의 눈이 내 마음을 깊숙이 꿰뚫어보신다는 것과 내 귀엔 스승님의 말씀이 음악처럼 들린다는 것, 그 생각뿐이었다. 스승님에게 아주 친숙한 느낌이 들어서 마치 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다. 하지만 그럴

리가 있겠는가? 스승님을 본 것도, 그 이름을 알게 된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으니 말이다. 그 뒤 센터에서 뉴스잡지와 책을 읽고 강연 테이프를 보고 난 후 나는 스승님의 자애로운 눈길과 목소리에 도취되기 시작했다. 스승님의 강연은 내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스승님은 나의 질문에 모두 답해 주셨고 매 순간 신과 더 가깝게 느끼게 해주셨으며, 내가 평생 동안 갈구했던 평온을 안겨 주셨다.

석 달 뒤 입문하게 되었을 때, 스승님은 신과의 진정한 소통방법을 전수해 주셨을 뿐 아니라 내 손을 잡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이끌어 주셨다. 스승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나는 도중에 만나는 어떠한 장애도 두렵지 않았다. 늘 나를 감싸고 있는 스승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해서 잠자면서까지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스승님은 또한 나와 내면의 스승을 이어주시고, 스승의 가피력이 24시간 내내 함께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제 나는 신께서 유년기부터 열망했던 나의 본 고향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하여 스승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안다.

스승님, 저희에게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어려운 일을 맡아 주시고 우리가 신의 자녀임을 일깨워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무지를 감당하시고 외로움과 슬픔, 고통을 인내하셔야 하기에 당신의 이 사명이 그 무엇보다도 어렵다는 것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선 신을 대신해 수없이 문을 두드리시지만 우리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고통에도 굴하지 않을 큰 힘을 주십니다. 또한 당신은 우리가 최후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곳에선 신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시니까요.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나의 스승님,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게 당신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는 이 부족한 언어로는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 스승님이 달여 주신 탕약

중국 본토 왕 사저 구술/ 관음사자 기록

2001년 3월 중순 어느 날 아침, 왕 사저는 아침 준비를 끝내고 입원한 동수를 위하여 의사가 처방해 준 약재를 달이기 시작했다. 출근할 시간이 되어 서둘러 집을 나선 왕

사저는 약재를 달이고 있던 가스 불을 끄는 것을 잊어 버리고 말았다. 집에 돌아와서야 그녀는 불을 안 끄고 간 것을 알아차렸다. “큰일났네! 분명 약이 다 타 버렸을 거야!” 왕 사저가 가스 불을 끄고 약탕기 뚜껑을 열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약은 조금도 타지 않았고, 게다가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장장 9시간이나 불 위에 있었는데도 딱 알맞게 달여져 있었으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스승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를 일이었다! 스승님의 힘은 정말 무소부재하지 않은가!



## 어머니를 집까지 바래다주시다

중국 본토 지양 사저 구술/ 관음사자 기록

이제 80이 넘는 지양 사저의 어머니는 1998년 1월 중순부터 방편법을 수행하기 시작하셨다. 당시 어머니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방편법을 배웠는데, 방편법을 배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타니 벌써 저녁 7시가 한참 넘은 시각이었

다. 집에 가려면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야 했으나, 지양 사저의 어머니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날씨는 춥고 캄캄하고, 미끄러운 길에 혼자뿐이라서 초조해졌다. 그때 갑자기 다독거리는 음성이 들려 왔다. “부처의 명호를 외우세요!” 어머니는 안도감을 느끼며 생각했다. ‘맞아, 스승님께서 오늘 방편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왜 스승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지?’ 이어서 그녀는 조용히 스승님의 이름을 외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몇 분 후 한 젊은 청년이 다가오더니 노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할머니, 날도 어두운데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청년을 보니 친숙한 느낌이 들어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다.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원래 그 마을에 살다가 몇 년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왔거든요. 웬지 집에 있기 지루해서 마침 산책 나오던 참이었는데 여기서 할머니를 뵈네요.” 청년은 지양 사저의 어머니를 집까지 바래다드렸고, 지양 사저의 가족은 무척 고마워했다. “필시 스승님께서 보내 주신 거야.”라고 지양 사저의 어머니는 말씀했다.

## 입문자 가족이 체험한 스승님의 고귀한 인배

아이미 브로섬 팬텀 사저/  
호주 바이런 베이 노던리버스 (원문 영어)

나의 여동생은 세 번째 아이의 출산 예정일 몇 주 전 출산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되어 서둘러 병원에 가게 되었다. 다행히도 아이는 축복 속에 건강하게 태어났다. 다만 출산할 때 비정상적으로 엄청난 양의 양수가 흘러 나왔는데, 이는 보통 아이의 기형 상태가 아주 심각하거나, 임신 중독증(산모의 혈압이 너무 높아져 형성된 유독한 혈액이 아기의 몸에 흘러 들어가는 증상)에 생기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동생은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되지 않아서 의사도 어리둥절해했다.

아이는 한쪽 새끼손가락만 기형일 뿐 아주 건강하였다. 의사는 염색체



변이나 뇌 손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검사해 봤지만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 나중에 동생은 임신 기간 동안 아무 이유도 없이 기형아를 낳을까 봐 무서웠다고 내게 말했다. 그후 우리는 여동생의 집이 해로운 전자파에 노출된 위험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전자파로 인해 다른 생물들도 기형체를 낳았고, 최근 이웃에 태어난 7명의 아이 중 3명이 기형아였던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기 1주일 전,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물에서 온전치 못한 몸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꿈을 꾸었다. 잠을 깬 후 나는 예전엔 거의 못 느꼈던 심한 고통과 절망감을 느꼈고, 그 생생한 꿈이 온종일 나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다음날 밤 다시 꿈을 꾸었을 때, 이번엔 아이가 온몸을 갖춘 모습이었고 악몽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스승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자비로운 스승님은 내게 꿈에서 가슴 아픈 상황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기형의 몸으로 살아갔어야 할 아이를 구해 주신 것이다. 나는 가족의 업장을 없애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우리가 진정 모든 것을 스승님께 맡긴다면 스승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업장을 없애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까지 그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안전한 보호벽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 스승님은 정말 나를 진보하게 해주셨으며 항상 돌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감사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 스승님의 은총으로 두 번째 생명을 얻다

중국 본토 왕 사형 구술/ 관음사자 기록

몇 년 전에 스승님을 알게 된 지 40일도 되지 않은 어느 날, 왕 사형은 물건을 배달하던 중 5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의사는 두 번째 요추가 부러지고 왼쪽 발목이 탈골되었다고 하며 즉시 깁스를 해서 뼈를 고정시키고 또 뼈를 치료하는 약도 처방해 주었다. 왕 사형은 약에 동물 성분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내심 갈등하다가 오랜 생각 끝에 결국 약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렇지 않으면 입문을 늦춰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스승님께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왕 사형의 결정에 큰 기쁨과 감동을 받은 많은 동수들과 예비 입문자들도 스승님의 힘이 약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동수들은 사형에 대한 염려와 격려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스승님의 오디오 테이프를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병간호를 하면서 말동무가 되어 주었으며, 채식요리를 해서 가져다 주는 동수들도 있었다. 왕 사형은 침대에 꼼짝도 못 하고 누운 채 요추의 마비 증상과 관절의 경련으로 고통스러워했지만 간호사가 준 약을

비닐봉지에 몰래 버렸다. 침상 옆에 놓인 녹음기를 통해 스승님의 오디오 테이프를 늘 틀어놓고 스승님의 법호를 계속해서 외우면서 그는 이 고통을 이겨낼 힘을 달라며 스승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여러 사람의 도움과, 무엇보다도 스승님의 크나큰 축복 속에 왕 사형은 1주일도 안 되어 척추의 감각이 되살아났고 일어날 수도 있었다. 그러다 보름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화장실까지 갈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한 달이 조금 넘자 그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왕 사형은 스승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며 이 두 번째 삶을 살게 해주신 스승님께 큰 감사를 드렸다.



# 유럽 선을 통해 어릴 적 기억이 되살아난다

완이라이 라컨디 동수/  
독일 뮌헨 (원문 독일어)

2002년 8월은 헝가리 유럽 선(禪) 동안 스승님과 화상회의가 열렸던 덕분에 내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다. 화상회의가 끝나자 스승님과 함께했던 유년 시절의 기억들이 모두 되살아났다.

화면에 스승님의 모습이 비치자 화상회의장이 바로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며 나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감동에 푹 빠져 있었다. 정말 운 좋게도 나는 처음으로 스승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당시 내 가슴은 두근거렸고 이렇게 행복한 적은 평생 처음이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이들이 지난 후에도 내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찬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명상을 하는 동안 어릴 적 겪었던 많은 기억과 모험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나의 유년 시절은 무척 힘들었다. 일곱 살 때 나는 강렬한 태양이 이글거리는 태국의 도로를 맨발로 뛰어다니며 플라ستيك, 병, 금속조각과 합판을 주워서 팔았다. 이렇게 해서 집안 살림에 보탬을 주었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안심은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진짜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한쪽 구석에 숨어서 울며 묻곤 했다. ‘왜 나는 부모가 없을까? 왜 날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까? 왜 아무도 날 원하지 않을까? 왜 혼자 버려진 것일까? 나의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 사랑이란, 신이란 무엇일까?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무수한 질문이 떠올랐다.

그러나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 석가모니불과 보살들, 미륵보살이 경이롭고 아름다운 세계로 데려가 주어 그곳에서 큰 즐거움과 웃음꽃을 피우곤 했으며 내가 무척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간혹 불보살이 데리러 오지 않을 때에는 용이 와서 등에 태우고 이곳저곳을 날아다녔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나는 매일 밤 기쁘게 잠들 수 있었고, 잠은 이 삶과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나의 안식처가 되었다.

때로 내가 잘못을 할 때는 그날 밤 꿈에 이상한 태양이 빛나곤 했는데, 그 빛이 너무나 밝아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낮에 절망감을 느껴 울 때도 그 빛이 나에게 나타났다. 기억이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빛은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불보살과 다정한 작은 용도 항상 그 옆에 있었다. 슬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혹은 죽을 고비에 처할 때(나는 다섯 번이나 죽을 뻔하였다)면 항상 나타나곤 했다.

24세 때에는 거의 한 달 동안 세 명의 저승사자가 매일 밤 나를 찾아왔다. 당시 나는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잠만 자려고 하면 그들이 내 몸에서 영혼을 빼내 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부처의 명호를 외우면 바로 나를 놓아주었지만, 다시 잠이 들면 그들은 그 즉시 다시 나타났다.

한 달쯤 지나 저승사자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려 할 즈음 한 인도 스승이 꿈속에 나타났다. 그는 나를 용신호법이 가득 그려진 어떤 집으로 데려갔다. 그림들은 모두 거대했으며 마치 살아 있는 듯했다. 그는 흰 천을 바닥에 깔고 나에게 그 위에 누우라고 했다. 내가 천 위에 눕자 스승은 하얀 빛을 발하는 모르는 여자로 모습이 바뀌더니 내 머리 위에 누워 흰 천으로 우리를 덮었다. 그러자 저승사자들과 귀신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태국에서는 이것이 수명이 연장된 것을 뜻한다.

몇 달 후 나는 스승님의 아주 오래된 견본책자를 받게 되었다. “세상에, 이처럼 깨달은 스승이 있다니! 아직 살아 계실까?” 그래서 나는 포모사에 편지를 써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연락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나는 연락인에게 전화를 한 후 바로 뒤셀도르프 센터를 처음으로 방문했고 곧 방편법을 신청했다.




방편법을 수행하면서 나는 무한한 축복과 체험들을 얻었고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매 순간 스승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6개월 후 나는 입문을 받았다. 입문하기까지 하루하루가 지독한 갈망으로 가득 찬 시간들이었다. 마침내 입문을 했을 때, 나는 그 이상한 빛과 그 옆에 있던 존재들의 정체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스승님이었던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돌봐 주신 스승님을 생각하면 나는 항상 울고 싶어진다. 왜냐하면 나의 어머니는 온갖 방법으로 나를 낙태하려 했기 때문이다. 스승님께서서는 나를 망치려 하고 입문을 방해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 스승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기에 내가 입문을 하고 해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안다. 처음으로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 자비,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스승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그 어떤 말로도 이 마음을 대신하지 못할 테니 그저 나의 이 부족한 시를 바칠 뿐이다. 그렇지만 부디 스승님이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 스승님이 한 시에서 쓰셨던 것처럼 스승님과 나는 '쌍둥이' 이니까 말이다.

## 당신이 계시기에

당신이 믿어 주시기에  
내 안의 사랑은 강해질 수 있어요  
당신이 사랑해 주시기에  
낭만적인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나를 보는 당신의 눈길만 있다면 낮은 아름답고,  
밤엔 아기처럼 꿈꾸지요  
당신이 함께 계시기에 나는 지금 영원한 천국에 있어요  
당신이 내 안에 계시니 나의 모든 바람이 이뤄졌어요  
어머니, 그러나 당신이 내 곁에 안 계신다면  
마른 땅에 놓인 물고기처럼 금세 지치고 말 거예요  
사랑도 없이 두려움만 가득한 채 고통스럽게 죽어가겠지요  
빛이 없어진다면 온통 암흑일 거예요  
당신도 없이 혼자라면 낯선 곳에서 길을 잃겠지요  
당신의 인도가 없다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가겠어요?  
당신의 자비가 없다면, 내 영혼은 어디서 보호받나요?  
당신의 사랑이 없다면, 내 영혼은 어디서 쉬어야 하나요?  
스승님, 오직 당신에게서만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어머니, 오직 당신에게서만 나는 평안을 구할 수 있어요

  
성스런 빛이며,  
오직 당신에게서만 나는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오직 당신에게서만 나는 사랑과 보호를 느낄 수 있어요  
당신 마음속에 항상 나를 품고 있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당신은 빛이니까요  
당신은 길이며  
신의 표적이며  
아름다움이며  
당신은 지고한 존재이니까요  
최고의 존재  
왕 중의 왕  
우주의 존귀한 분이시여,  
당신 때문에 만물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천국의 연꽃 속에서.





# 우주적 신기원(新紀元)을 열어 나가자

청하이 무상사/ 1992. 2. 25. 말레이시아 (원문 중국어)  
비디오 테이프 No. 218

중국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깨달은 스승이 ‘평천하’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중국만을 지칭한 것이지 더 넓은 의미로 전세계를 가리킨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 의미를 더 크게 확장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 교통하고 교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러한 의사소통과 교류가 지구상의 국가들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행성들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확장되어야 마땅하며,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가 왔을 때 우리, 혹은 우리 자손들이 미처 손쓸 틈이 없을 테니까요.

어렸을 때 내게는 아주 큰 꿈, 아주 큰 바람이 있었습니다. 즉 내가 자라면 어떤 선인(仙人)이나 천상의 존재들이 내려와 나를 가르치고 지혜를 열어 주고, 또 천국으로 날아갔다 다시 날아서 돌아오는 법을 가르쳐 주길 꿈꿨습니다. 어려서 왜 그런 것을 소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나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가끔 꿈과 소망을 가져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

리가 진실로 신실하고 그 소망에 생각을 집중한다면 언젠가 그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국인에게도 이런 속담이 있지요. ‘꿈을 꾸지 않으면 어떻게 꿈을 실현시키겠는가?’

## 우주연맹의 구성원이 될 준비를 하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주행성연합국의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나는 언젠가 그 꿈이 실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우리 지구인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 다른 행성들이 언제 우리와 교통하고 싶어하는지에 달렸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와 소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UFO라든가, 많은 행성에서 온 우주인들이 나타난 지는 오래되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고차원적인 지식을 알려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행성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때로 그들은 그에 관한 책을 쓰기도 하고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다른 행성의 외계인들은 때로 지구에 내려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구인들은 다소 비우호적인 데다 야만적이니까요. 예전에 예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본다면 이 점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국가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온 우주를 감싸 안을 수 있을 만큼 생각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지위에 걸맞게 매우 넓고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아직도 왜 우리가 그토록 위대하며, 어째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보다 크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천지를 놀라게 할 불가사의한 꿈을 가져도 무방합니다.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훌륭한 경전들을 읽고서 그 안에 담긴 탁 트인 사고와 수행의 정신을 배울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강연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행이 아주 높아서 수많은 세계의 존재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불은 살아 있을 당시 다양한 경지와 다른 행성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한 경전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미타경』은 아미타불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으며, 『법화경』 보문품과 같은 경전에서도 수많은 경지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도 석가모니불과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겨우 세계 여행이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2, 3백 년 전에는 사람들이 미대륙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미국은 세계의 초강대국으로서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몇백 년 전만 해도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다! 또 오늘날과는 달리 그 당시 사람들에게겐 비행기,

팩스, 전화, 비디오 레코더, 카메라 등과 같은 많은 유용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짧은 기간내에 미국인들은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켰음은 물론 국민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오래지 않아 세계 제1, 2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몇백 년 만에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룩했으니, 앞으로 수십, 수백 년 후에 이보다 더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좀 전에 얘기한 '우주행정연합국'도 꿈에 지나진 않을 것입니다.

콜럼버스는 미국을 발견한 영웅입니다. 미국을 발견하기 전 그는 이미 내면으로 미국을 보았습니다. 어떤 비전을 통해 미리 알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을 미리 보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던 거죠. 당시 그와 선원들은 조그만 배에 얼마 안 되는 식량을 실은 채 방향도 거의 정확치 않은 항로를 따라 그냥 바다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사실 콜럼버스는 꿈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봤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미 꿈에서 봤으니 반드시 발견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대부분은 분명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미대륙에 거의 도착할 무렵엔 배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신발 가죽까지 먹어야만 했습니다. 콜럼버스와 함께 배에 탔던 선원들은 매우 화가 났고, 자신들을 죽음의 항해로 이끈 콜럼버스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신대륙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심지어 콜럼버스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몰려서도 콜럼버스는 인내심을 갖고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자신감과 인내심이 있었기에 오늘날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때로 깨달은 스승이 법을 펴기 시작할 때에도 많은 방해와 어려움, 모욕을 겪어야 합니다. 게다가 그 모든 것을 홀로 참아내야 합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스승의 내적 인내심과 관대함과 고통을 참아내는 의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일은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결국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비록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지만 그의 가르침과 이름은 계속 전해져서, 2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엔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들이 출현해 우리와 터놓고 교류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우고 서로의 경험을 교환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신의 좋지 않은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또 이 세계와 우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차츰차츰 연구해 나가야 하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불공평한 일들을 보면 그것을 돕고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우선 자기 자신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변화의 방식은 우리가 신의 힘과 연결되어 신의 힘이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이 잘못되거나 예고에 속아 자신이 변화하지 않았는데도 변화되었다고 속을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아직도 명리심이 강하고 탐진치(貪瞋癡)가 많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진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진 않지요. 불보살의 힘과 신의 힘이 없다면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 신은 가장 큰 사랑의 힘

신은 정말 사랑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에게 무엇 이든 주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는 법을 알아야 하며, 또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신실하게 신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신과 교통도 해야 합니다. 신과 교통하고 나서야 신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상황을 안배해 주셨고, 어떤 방면에서 우리를 돌보고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유용한 것들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이 이미 응답을 했더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로 신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어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

대했던 것이 아니란 이유로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신을 원망하지요. 사실상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에게 좋지 않은데도, 우리는 자신의 무지와 몰이해로 인해 신이 자비롭지 않고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들은 모두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나서는 어떤 것을 기도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좋기만 하다면 조만간 갖게 됩니다.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지요. 왜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때로 신이 상황을 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 기도할 때, 그것은 때로 그 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 사람 혼자만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지요. 따라서 신이 한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안배하려 한다면 먼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아니면 때가 아직 안 되었는데 너무 일찍 준다면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때와 상황이 알맞을 때가 되면 그에게 줍니다. 그래야 그에게 좋지요.

신은 진실로 사랑을 대표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신이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 세상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내가 신을 알고 나서 지금까지 신은 나에게 언제나 잘해 주었습니다. 신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애인, 남편, 아버지, 어머니 등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신에 대한 나의 느낌과 이해, 우리들 사이의 정과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 줄 방법은 없지만, 나는 신이 가장 큰 사랑의 힘이며 가장 큰 부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리고 다른 중생들에게 이롭지 않은 일을 신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신이 가장 큰 사랑의 힘이라면, 왜 이 세상에는 아직도 고통과 불행, 재난이 존재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의 은총을 받고 어떻게 신과 교통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걸으면서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관



음법문을 수행했다면 이 세상은 진작에 평화스러워졌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단체처럼 굉장히 평화로웠겠지요. 우리는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조용하고, 각자 자신의 일을 하며, 모두들 행복과 만족으로 얼굴에 선 빛이 납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에서 각자의 책임을 다합니다. 놀 때는 온 마음을 모아 즐겁게 놀고, 일할 때도 역시 온 마음을 모아 즐겁게 일합니다.

많은 동수들이 일을 매우 빨리 하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집니다. 올바른 것을 바라는 한, 신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나에게도 그렇습니다. 나는 거의 기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줄 얘기들이 없지만, 내 제자들 거의 대부분은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신구의의를 정화한 후 체험했던 일들을 가지고 두꺼운 책 한 권도 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이 얼마나 그들에게 잘해 주셨고, 얼마나 귀여워해 주셨으며,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 경우에서 내가 말해 줄 수 있는 건, 내가 법을 펴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제자들을 돌보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신께서 도와주셨다는 정도입니다. 이 외에도 재정적인 면, 지혜와 조직적인 면에 있어서도 신은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만약 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며, 내가 이룬 것은 '제로(zero)'가 되었을 것입니다.

## 신의 은총을 받는 법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신'이라 불리는 이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그를 '불성(佛性)', '불조(佛祖)'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신은 매우 좋은 분이며 매우 좋은 부자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신과 닿는 방법을 알고 도움을 청한다면, 신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신은 온갖 방법과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에서만 신을 찾기에 진정한 신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모든 가르침과 이야기는 나와 내 제자들의 개인적인 경

험들입니다. 책이나 경전을 읽어서 안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신의 위대함을 체험했으며, 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날마다 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이 진짜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에 가톨릭 신자였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그 당시엔 신을 찬탄하지 않았습다. 왜냐하면 신이 나의 어떤 것을 돌보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당시에 나는 세상이 고통과 수많은 불공평한 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분개하며 신이 왜 그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것을 모두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언어로는 신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고 분명하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신은 완전한 사랑이며 절대적으로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을 발견하고 신과 통하는 법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신도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 한쪽 다리로 서서, 또는 무릎을 꿇고 밤새 신을 찬미함으로써 신을 숭배하는 내 마음을 여러분에게 알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때로 나는 그런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누구에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수들은 이해하겠지요. 그러나 그 또한 각자의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수행이 높은 동수일수록 신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신의 사랑을 더욱더 이해합니다. 더 많이 명상하고, 신구의의를 정화하고 채식을 잘 지키며 계율을 엄격히 지킬수록 신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채식을 하고 명상하며 신을 생각한다고 해서 신이 우리를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라든가 주고받는 장사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채식을 하고 계율을 지키고 신구의의를 정화한 후에야 비로소 신이 우리를 어떻게 돌봐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에는 온갖 잡념들로 가려져 있어서 신이 우리를 돌보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 주어도 듣지 못하고 정 반대 방향으로, 번뇌와 복잡한 일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주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거나 흘려가게 내버려두었습니다. 컵이 바로 서 있을 때는 물을 담을 수 있지만, 거꾸로 둔다면 그 안에 있던 물은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달리 말해 비가 오는 날 비옷을 입고 있다면, 하루종일 밖을 걸어도 비에 젖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사랑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신은 항상 우리 곁에, 우리 내면에, 그리고 외면에도 존재합니다. 신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우리는 편견과 세세생생 갖고 내려온 습관들로 둘러싸여, 신은 불공평하며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컵을 바르게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것은 엎어진 컵을 다시 바로 세워 놓듯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관음법문을 수행한 날부터는 항상 감로수로 가득 차고 신의 축복으로 넘치게 됩니다.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되지요.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중생의 업을 짊어질 때를 제외하고는 ‘피로’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일은 많이 하는 반면, 많이 먹지도, 자지도 않기 때문에 소비는 아주 적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 채식을 하고 오계를 지키며 단순한 삶을 삽니다. 오늘 오후, 한 제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만약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관음법문을 수행한다면 분명 전쟁도 없고 기아도 사라질 것입니다. 또 매우 빨리 일을 하게 되고 서로 돕고 믿으니 이 세상은 분명 천국이 될 거예요!” 나도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관음법문 수행자들은 기도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바라는 게 없어집니다. 일을 해서 쓸 만큼 돈을 벌지만, 채식 음식은 값이 싸지요. 더욱이 우리는 오계를 지키니 흡치거나 술을 마시지도 않고, 남의 부인이나 남편을 차지하

지도 않으며, 마약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보다 적게 먹으며 단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지출도 점점 줄어들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면 시간이 날 때마다 명상하지, 물질적인 즐거움에 빠지거나 나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일이 끝나면 집에 돌아가 명상하거나 단체명상에 참석하고 매일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므로 나쁜 것을 할 시간도, 생각도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꿈일 뿐, 그것이 실현될지 여부는 신의 뜻에 달렸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 전부가, 아니면 절반이라도 관음법문을 수행한다면 이 세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몇몇 뛰어난 과학자들과 의사들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들을 발명했는데, 심지어 어떤 발명품들은 무슨 병이든 고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지원이 없어서 그 기계들은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과학자들이 발명한 기계는 단기간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시기해 개발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프로젝트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관음법문을 수행하여 서로 돕는 마음이 생기고 사심 없이 사회에 공헌하며 진심으로 신과 인류를 섬긴다면 그 누구든 재능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인류에게 이로운 여러 가지 기계를 발명할 수 있고, 의사들도 온갖 질병을 치료할 많은 약과 기구를 연구·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은 영적으로 고양될 뿐 아니라 많은 선진적인 도구들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삶이 안락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열반에 들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꿈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꿈은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의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축복해 준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아르헨티나 홍법 보고서

글/ 관음사자

## 성모의 사랑

아르헨티나 산타페의 산타토메(Santa Tome)에서는 몇몇 방편법 수행자들이 오랫동안 입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2002년 7월 관음사자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 중 한 여인은 잘못해서 동물 성분이 들어 있는 음식을 먹는 탓에 바로 입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매우

상심하였다. 관음사자는 그녀를 위로하며 다음 입문식이 있을 때까지 열심히 방편법 수행을 계속하라고 하면서 스승님은 당신을 똑같이 돌보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우 슬퍼하며 집에 돌아와서도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화신 스승님이 나타나셨다. 화신 스승님이 하얀 스카프를 머리에 쓰고 계셨기 때문에 처음엔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가까이 다가가 보니 칭하이 스승님이었다. 스승님은 그녀를 위로하시며 그녀의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옆에 계시다가 아주 천천히 사라지셨다.

그날 오후 방편자 명상 시간에 참석한 그녀는 자신의 체험을 관음사자에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음식을 잘못 먹어서 입문할 수 없었던 사연을 관음사자가 스승님께 보고하자 스승님이 그것을 아시곤 화신을 나누어 자기 집에 오신 것으로 생각했다. 이에 관음사자는 그녀에게 스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다음날 화신 스승님은 그녀의 집에 다시 나타나셨다. 스승님이 다른 한 사저를 가리키시곤 그들 두 사람이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사저가 늘 함께할 것이니 이제는 외롭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결국 사저는 이것이 자신이 배워야 할 공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은 열심히 정진하며 채식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날 오후 방편자 명상 시간이 있을 때 찾아온 일부 방문객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했는데,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다 본 후 모두 남아 방편법을 배웠다. 그 중 영적 치유법을 수행하는 한 여성은 입문은 하고 싶어했지만 영적 치유도 그만두고 싶어하지 않았다. 많은 질문 끝에 영적 치유는 무상한 육체만을 돌볼 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원한 진아를 돌보는 것이며, 또한 입문을 통해서만이 내면의 진아를 일깨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나서 한 달 후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일부러 찾아와 입문을 받았다. 그녀는 입문 후 가진 체험에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스승님의 가르침에 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했다.

## 신은 갈망하는 영혼을 지나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다.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매우 아름다운 대도시이며, 이 지역 동수 중에는 화가, 음악가, 가수 등 예술가들이 많이 있다. 2002년 8월 에 열린 한 생일 파티에서는 음악가 동수들이 기타와 바이올린을 가져와 자신들이 작곡한 곡과 애창곡을 즉석에서



아르헨티나 산타페의 산타토메 지역 동수들.



부에노스 아이레스 동수들 중에는 재능 있는 예술가가 많이 있다.

연주하며 불렀다.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동수들이 준비한 맛있는 채식 케이크와 피자도 즐겼다. 또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이태리어, 헤브루어, 아랍어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8월에 생일을 맞은 사람들을 축하해 주었다.

신은 천국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준비된 영혼을 하나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는 법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002년 7월에서 8월까지 관음사자가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동안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두 차례의 입문식을 가졌다. 수년 동안 채식에 해 왔던 한 쌍의 젊은 연인들은 스페인에서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보고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후 우리 센터를 처음 방문했을 때 금방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한 관음사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관음사자와 이야기할 기회를 잡고 입문 신청을 한 후 얼마 뒤에 입문하게 되었다.

## 한 사람의 힘이 수많은 사람을 감화시킨다

아르헨티나 북부에 위치한 뚜쿠만의 작은 마을 타피 비에즈(Tafi Viejo)는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 지역에 사는 한 동수는 뚜쿠만에서 아직 한번도 비디오 강연회가 열린 적이 없었기에 이 지방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싶어했다. 그는 관음사자가 있는 동안 뚜쿠만에서 마땅한 강연회장을 찾아보려 했지만 시간이 촉박한 탓에 구할 수 없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살고 있는 타피 비에즈에서 강연장을 구한 그는, 2002년 8월 11일에 열린 흥법 세미나에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친구들이 스승님을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미 스승님에 대해 알고 있던 친구들 중 일부는 세월이 좀 지나자 이 명상법을 배우고 싶어했습니다.”

이날 강연회를 통해 그 사형의 많은 친구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알게 되었고 방편법을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몇몇은 입문을 했다. 지금은 그의 부모님도 방편법을 수행하면서 진심으로 스승님의 힘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다. 스승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바꿀 수 있으니 말이다!

##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이 포모사에서 200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방송된 이래로 동수와 일반 대중 모두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002년 11월 2일부터는 선(SUN) 위성 TV로 방송국이 바뀌어 1주일에 두 차례 방영될 예정이다. 새로운 시간대는 다음과 같다.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00부터 10:30까지**

동남아시아의 선(SUN) 위성 TV 시청자들은 각 지역의 시청을 고려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다른 TV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방송 시간표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net/events/tv.htm>

TV 방송을 위해 흥법용 ‘예술과 영성’ 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통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mailto: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 (미국)





# 계율을 지키며 사는 것이 자신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청하이 무상사/ 2000. 4. 27. 뉴질랜드 오클랜드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686

**질문:** 입문한 뒤에 계율을 깨면 어떻게 됩니까?

스승님: 그건 마치 결혼한 후 ‘외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당신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여기 있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과 신의 문제일 뿐입니다. 당신은 신에게 이렇게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당신을 알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나에겐 살아가기 위한 이 모든 쓸모 없는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이 없어도 난 살 수 있습니다. 난 내 이웃을 죽이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마약이나 술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강하므로 이런 정신을 흐리는 대체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에 취해 살 수 있으며, 스쳐 가는 남자나 여자와 섹스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나는 항상 술, 마약 등에 빠져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이웃 여자를 탐하는 사람이다. 나는 죽이고 살인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고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깨달은 사람으로, 지혜롭고 행복하며 도움을 주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으니,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계율은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일종의 삶의 방식이지요. 여러분을 세상에게, 신에게, 리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에게 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싶은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계율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 두려움을 이기는 법

청하이 무상사/ 2000. 4. 27. 뉴질랜드 오클랜드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686

**질문:** 우리가 강한 두려움을 느끼는 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려는 건가요?

스승님: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이 두려운 상황에 있다면, 두려움을 느끼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휩싸여 마비가 된 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런 감정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은 자연스런 감정이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잘 처리하면 됩니다.

나를 예로 들자면, 여러분은 내게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나도 두렵습니다. 나는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까 봐 두려웠어요. 또 내가 이해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킬 방법을 모를까 봐 두려웠습니다. 정말 두려웠어요! 오늘 나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찻집에 가서 차를 한잔 했습니다. 어제부터 아무 것도 먹질 못했거든요. 비행기에서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짐을 챙겨 출발하기 전에 한꺼번에 많은 일을 서둘러 처리하느라 육신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도 못 잤지요. 그래서 비행기를

탤 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잠을 자거나 폭 쉬 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오늘 아침엔 강연장에서 잠 들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차를 마시러 갔는데, 그곳에선 많은 사람들이 차를 마시며 온갖 얘 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지요. ‘내가 어 떻게 저 사람들에게 신에 대해 말해야 할까? 저들이 과연 신에 대해 관심이 있을까? 저 사람들은 물질적인 삶에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도 두려웠습니다. 진짜로 두려웠던 건 아 니고 그다지 힘이 생기지 않았고 의욕이나 자신감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나는 해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 지만 그것을 극복해 냈지요. 내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만약 두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그 상황을

호전시킬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사람 이 있다면 사랑으로써 우리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를 나쁘게 대하여 두렵게 하는 사람들 은 그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 라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두려운 감정이 있더라도, 우리는 마 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좋아, 두 령긴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에 서 벗어날 수 있지?’ 여러분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 하기 위해 자신을 조절해야 합니다. 자신을 조절한다 는 것은 우리가 보다 안정되기 위하여 상황에 대처한 다는 것을 뜻하며, 그리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 다. 두려움은 억누를 수 없으므로, 두려움에 잘 대처 해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 원수를 사랑하라

청하이 무상사/ 2000. 4. 27. 뉴질랜드 오클랜드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686

**질문: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스승님: 아니, 그것 말고 원수를 어떻게 할 수 있겠 습니까? (대중 웃음)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군요. 당신 이 그를 죽이면 그의 아내가 당신을 죽일 것이고, 아 니면 그의 딸이나 아들이 그렇게 하겠지요. 그건 끝도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편 이 더 낫습니다. 그것이 그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

법이에요! (대중 웃음)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면 그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그러면 원수는 영원히 사라집 니다. 대신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친구가 생깁니다. 그의 가족, 아내, 아이들, 친척, 친구들이 말합니다. 친구를 하나 사귀면 많은 친구를 얻게 되고, 원수를 하나 만들면 많은 적이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수 를 미워하면 ‘손해보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 내면의 가치야말로 진정한 보물이다

청하이 무상사/ 2000. 4. 27. 뉴질랜드 오클랜드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686

**질문: 모든 사람이 다 신의 창조물로서 동등한데, 왜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데 비해 어떤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고도 물질적으로 성공한 삶을 삽니까?**

스승님: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 다르기 때문입 니다. 물질적인 부와 안락함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축 복받았다거나 어떤 좋은 점이 있다는 걸 의미하진 않



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순간,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깨달음과 부를 얻는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재산만 많을 뿐 영혼이 공허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곧 아무것도 없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비록 물질적인 재산이 많진 않아도 마음은 부유하며 큰 사랑과 큰 자비, 대 지혜가 있습니다. 부처나 예수의 경үүл 봐도 그들은 맨발로 걸었습니다. 돈도, 차도 없었

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들 발아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2, 3천 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귀기울이고 숭배합니다. 그러니 누가 더 부유한가요? 밖의 백만장자인가요, 아니면 예수와 부처인가요?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중요하지요.



## 화상회의로 입은 무한한 은혜

중국 본토 동수 일동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님께

저희, 중국 본토에 있는 제자들은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의 동수들 대부분은 스승님을 직접 뵈 수 없지만, 화상회의를 통하여 스승님의 사랑과 가피력을 느낄 수 있어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매번 화상회의가 끝날 때마다 다음 화상회의가 어서 열리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저희 대륙 동수들에게 해주셨던 격려와 조언에 특히나 감사드립니다. “참기는 힘들지만 참아내야 하며, 명상하기 힘들지만 명상해야 합니다. 또 삼매에 드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은 삼매에 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차츰차츰 더 나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이 진보한 부분,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만 보십시오. 이 세상엔 먼지는 많으나 다이아몬드는 매우 적

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런 것입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면 부처님과 예수님도 많이 인내해야 했으며, 과거와 현재의 많은 스승들 역시 엄청나게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수행을 할수록 더욱더 참아낼 수 있으며, 그러면 어떤 고통이든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할 것입니다.”

화상회의는 저희에게 막대한 이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이 크게 진보했다는 것을 느끼고, 또 오래된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이 외에도 스승님이 모든 곳에 내려 주신 축복으로 인한 이로움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스승님의 은총을 소중히 여겨 더욱더 열심히 수행할 것입니다.

스승님, 언제나 젊고 아름다우시길, 그리고 스승님과 재회할 날이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스승님을 영원히, 영원히 사랑합니다!

중국 본토 제자들 올림



# 당신은 우리의 어머니이자 연인입니다

사나도고 마디 삼손 사형/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  
(원문 프랑스어)

사랑하는 칭하이 무상사께

스승님과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스승님께 편지를 쓰게 되어 무척이나 기쁩니다. 스승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여 근원으로 돌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고귀한 일을 맡으셨기에 스승님의 수많은 희생은 참으로 존경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스승님! 당신은 우리의 스승일 뿐 아니라 어머니이자 연인입니다. 스승님과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알기도 전에 저는 꿈속에서 이미 당신을 뵈었습니다. 1998년, 어느 날 꿈속에서 저는 칠혹 같이 어두운 쪽과 눈부시게 환한 다른 쪽 경계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양쪽에는 각기 다른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쪽에는 인간의 모습을 했으나 개의 머리와 꼬리를 가진 존재가 있었고, 밝은 쪽에 있는 존재들은 허리에 황금빛 벨트를 두른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쪽 존재는 제 왼손을, 밝은 쪽 존재는 제 오른손을 잡고 있어 저는 그 사이에서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밝은 쪽 존재가 승리하자 그들은 저를 하늘 위로 끌어올리고는 한동안 제 주위를 둥글게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저는 다른 존재들이 줄지어서 우리를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얼굴을 베일로 가린 흰옷을 입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저와 결혼할 사람이라고 말했지요. 후에 저는 그 꿈속의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 꿈이 제가 실제로 결혼할 징조라고만 생각했었지요. 그러다가 제가 사는 도시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센터에 가서 베일을 두른 스승님의 사진을 보았을 때, 저는 즉

시 스승님이 꿈속에서 성인들이 소개했던 그 여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와 스승님은 아주 깊은 연이 있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계율을 지키기 시작했으며, 그후로는 내적 체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한번은 내면의 비전을 통해 푸른 수정으로 된 집을 보았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보니 위에 ‘성인의 처소’라고 적혀 있었고, 나무와 나뭇잎, 꽃과 과일 모두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또한 구름 속까지 뻗은 큰 나무도 보았는데, 이때 강렬한 빛줄기가 저를 비추자 저는 그대로 쓰러져 바닥을 기어 다녔습니다. 빛이 사라지기 전, 저는 그 빛 속에서 많은 귀한 것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꿈에서는 천국에서 한 여인이 물 속에서 헤엄을 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자 그 여인은 제 몸을 통과해 나갔는데, 그때의 충격으로 잠을 깬습니다. 그리고 종종 꿈에서 많은 빛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스승님, 아주 힘겨운 환경에 처해 있는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시길 고대합니다. 저의 내면의 지혜와 사랑은 스승님의 축복을 통해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세상에 지치고 지쳐 천국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승님,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신을 위해 일하기를,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찬 이 고통스런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스승님,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저를 보살펴 주십시오.

스승님,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 초창기 사제간의 이야기

위엔리위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 성인의 마음, 성인의 행동

아직 공개적으로 법을 펴기 전 초창기에 스승님과 타이베이 교외 신디엔에 있는 황량한 별장에서 한동안 머무르셨다. 당시 우리는 그 별장을 싼 값에 빌려 깨끗이 청소한 후 단체명상 장소로 이용했다.

어느 날 나는 스승님과 위층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아래층에서는 입문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시자가 입문식을 위해 스승님을 모시러 위층으로 올라왔다. 그때 스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은 사람들을 입문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이 귀중한 말씀은 내 가슴속에 그대로 새겨져 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이렇게 자신을 깨우치곤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상황을 살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즉시 해야 한다.’

시간이 흘러 제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별장이 점차 협소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선(禪)에 참석한 동수들을 위해 스승님께서도 임대 기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비탈진 곳에 버려져 있던 창고를 보수하셨다. 창고를 함께 보수하면서도 나는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좀 있으면 이사 가야 할 텐데, 뭐 하러 이 일에 시간과 돈과 노동력을 낭비해야 하지?’ 스승님은 그 즉시 나의 의문을 아시고는 혼잣말로 말씀하셨다. “사람들마다 이사 갈 때가 되었는데 왜 이곳을 보수하느냐고 묻는데, 그건 선을 할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수리한 장소를 나중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게 뭐가 어쩔습니까?”

나는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방망이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성인의 마음과 범부의 마음은 이렇게도 다른 것이다! 성인의 마음은 매우 단순해서 현재, 주어진 시간에 살며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할 뿐 보통 사람들처럼 그런 복잡한分別심이 없다. 『금강경』에서도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應無所住而生其心)”라고 했다. 스승님의 생활과 언행은 가장 훌륭한 살아 있는 경전으로서 제자들에게 무궁무진한 이로움을 가져다 주신다!

창고 수리가 끝났을 때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그 내부가 너무 누추하다면서 아무도 그곳에 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스승님이 별장의 방을 제자에게 주시고 그곳으로 이사하셨다.

그 당시엔 재정적으로 어려워, 스승님은 차(車)를 살 여유가 없으셨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이 되면 스승님은 산을 걸어 내려가 다시 버스를 타고 타이베이 완화 지역의 사형 집에 도착해 법문을 하시곤 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고생을 견딜 수 없었던 시자는 항상 불평을 해댔다. 그러자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가자들은 일하느라 바쁘니, 우리가 좀더 고생하는 게 낫습니다.”

한번은 강연회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도중 길 옆에 버려진 목판을 발견하신 스승님은 그것을 주워다가 깨끗이 닦은 다음 그 밑에 두 개의 의자를 받치셨다. 그러자 버려졌던 그 목판은 멋진 식탁으로 새롭게 변신했다!

평상시 스승님은 시간이 있기만 하면 제자들에게 방석을 만들어 주시거나 가끔은 요리도 해주시면서 당신이 우리의 스승이라고 해서 높다는 티를 털끝만큼도 내지 않으셨다. 만약 누군가가 스승님이 제자들로 부터 이익과 명성을 바란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크나큰 오해다!

## 스승님 주위를 세 번 돈 말벌

어느 날 오후 휴식 시간에 몇몇 제자들이 스승님 처소 앞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문득 말벌 한 마리가 거미를 꼭 물고 놔주지 않는 것이 보였

다. 우리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말벌을 쫓아 보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혼란스런 광경을 보신 스승님이 무슨 일인지 보기 위해 건너오셨다. 상황을 파악하신 후 스승님은 말벌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미와 무슨 인과가 있다고 해도 그를 놓아주어야 해!” 놀랍게도 그 말벌은 마치 스승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것처럼

그 즉시 거미를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스승님 주위를 세 번 돌더니 날아갔다.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의 주위를 세 번 도는 것은 옛날에 부처님께 큰 공경을 표하는 하나의 예절이었다. 말벌조차도 살아 있는 깨달은 스승을 알아보다니,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지 않은가!



## 어미 소의 사랑

중국 본토 동수

이 이야기는 중국의 서쪽 칭하이(青海) 성의 완전 불모지인 사막지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이 지역의 관공서에선 주민들의 식수 및 각종 용수량을 매일 1인당 3kg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모든 용수는 이 지역에 주둔하는 군대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송해 오는 물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니, 동물들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인지 누구나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는 늙은 암소 한 마리가 고삐를 풀고선 물을 수송하는 트럭이 지나게 되어 있는 사막의 유일한 길 한 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주민들이 이 암소가 대체 왜 그러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할 즈음 수송 트럭이 도착하였다. 그때 갑자기 암소가 트럭 앞으로 뛰어들자 수송 차량들은 급제동을 걸 수밖에 없었다. 암소는 그리고선 트럭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다. 트럭 운전사가 암소를 몰아내려고도 해봤지만 소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쌍방이 팽팽히 대치하는 상황이 꽤 오래 지속되었다.

물을 수송하는 군인들은 전에도 이러한 상황을 겪긴 했었지만 차가 막힐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엔 이전과 경우가 달랐다. 오도 가도 못한 뒤의 운전자들은

고함을 치기도 하고, 몇몇 성질 급한 기사들은 불을 붙여 위협도 해봤지만, 이 고집 센 암소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때 소의 주인이 도착해 이 바짝 말라 뼈밖에 없는 암소에게 피부가 벗겨지도록 채찍질을 해댔다. 그러나 암소는 고통에 찬 울음소리를 내면서도 길을 양보하지 않았다.

늙은 암소의 괴로운 울음소리가 너무나 가슴을 찢는 듯해서 서 있던 군인들과 운전자들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군인 한 명이 말했다. “이번 한번만 규칙을 어기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는 트럭에서 물 반통(1.5kg)을 가져와 암소 앞에 놓아 주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암소는 물을 건드리지도 않았다.

늙은 암소가 석양을 바라보며 ‘음매’ 하고 소리를 지르자, 얼마 안 있어 멀지 않은 모래더미 뒤에서 어린 송아지 한 마리가 달려 나왔다. 상처 입은 늙은 암소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송아지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리고선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서로의 눈을 훑아 주며 말없이 서로의 사랑을 전했다. 그런 다음 누가 몰고 갈 것도 없이 자기들끼리 떠나갔다.





# 초세계의 치료법

청하이 무상사/ 1985. 8. 3. (원문 영어, 중국어) CD No. CE01

여러분에게 다른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육체, 영체 등등의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 마약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뿐 아니라 영체에도 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으면 천국의 존재들은 마치 이 세상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 그들의 영체를 치료하고 돌봐야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런 치료를 받아 회복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경험을 무수히 하며, 자신의 공부를 마치고 나면 수행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더 높은 중생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금성'이라고 부르는 행성에는 온갖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작은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총명하고 영적이며 경지가 높아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스승'의 지위에 근접해 있고, 그 중 대부분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약물이나 도구가 아닌, 다양한 에너지의 광선, 빛으로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레이저 광선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암을 치료하듯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교적 높고 뛰어난 과학자인 셈입니다. 스승은 그보다 더 진보한 과학자로서 자장 에너지를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훌륭한 과학자가 햇빛을 에너지로, 전기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금성'은 이러한 천국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이름에 집착하지 마세요. 천국이 거기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니까요. 아주 많은 행성들이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다른 정토의 많은 존재들 역시 우리를 늘 돕고 있습니다. 그들은 빛 에너지로 자기 행성과 지구, 지옥에 있는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들은 가엾은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자살 방법은 아닙니다. 자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육신을 죽이는 건 아주 나쁜 일이지만 최악의 경우는 아닙니다. 자신의 영체를 죽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일이지요! 만약 술이나 마약을 하고 이 물질적인 삶만 돌보면서 교회도 안 가고 절에도 안 가고 영성 강연에도 결코 간 적이 없고, 명상도 하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으며 염불도 하지 않고 어떤 종교 교리에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매일 사람들과 어울려 술과 고기를 먹고 춤추고 음악 듣고 텔레비전과 신문을 보는 등 온갖 것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만약 여러분의 친척 중에 수행을 하고 도심(道心)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 여러분은 죽은 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친척과 함께 간다는 게 아니라 친척의 공덕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올라가선 아무것도 몰라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누워 있게만 되지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고 나면 빛나는 몸을 갖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빛이 없어서 모습이 이 육신과 같긴 하지만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마음이 물질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육신도 함께 데리고 올라온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 있을 때의 몸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만들어 낸 몸으로서, 겉보기엔 이 육신처럼 보이지만 마치 돌이나 나무처럼 아무런 감각도, 생각이나 지성도 없습니다.

그들의 친척이 수행을 하고 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 공덕을 얻어 그들과 함께 천국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혈연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렇다 해도 위로 올라오고 나선 의식이 흐리멍덩해서 그들의 친척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병원으로 데려가면 그들은 거기서 아주 오랫동안 돌덩이처럼 누워



있게 됩니다.

그때 천국의 선량한 존재들이 빛과 에너지로 그들을 치료하면서 자신들의 사랑과 힘을 그들의 몸에 쏟아 붓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면 그 환자들은 다시 소생해 그곳에 있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게 되며, 그때부터 서로 행복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업장이 가벼운 편입니다. 업장이 무거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준다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쁜 생각과 나쁜 생활 방식에 깊게 묶여 있어서 이런 사랑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암흑 속을 헤매게 되지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상을 하거나, 적어도 성경이나 경전의 말

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높은 힘과 접하고 있어 보호력이 약간 생기게 됩니다. 높은 힘이 조금이나마 그들을 보호합니다. 물론 수행을 많이 할수록 더욱더 좋습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신의 빛에 직접 접촉할 수 있고 인생에서 이미 빛을 볼 수 있다면, 죽은 후엔 반드시 높은 차원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우리 법문의 경우엔 입문하는 날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문의 경우엔 좀 늦어서 죽은 후 보게 되거나, 아니면 몇 년을 수행하고 나서야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세계에서는 빛으로 아이를 만들고, 옷이나 집, 나무 등 온갖 편리한 것들을 빛으로 만들어 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수많은 등급의 구분이 있습니다. 마치 한 나라에도 빈부간의 차별이 있듯이 말이지요. 하지만 높은 경지의 천국에서는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영원의 고향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중국어, 영어 + 중국어 통역>

CD-CE02 일세해탈

1985. 8. 8. 포모사 초창기 법문

‘초세계의 치료법(CD-CE01)’에 이어 새롭게 출판된 이 CD 또한 스승님이 대중 강연을 하시기 전의 초창기 법문을 담은 것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발간된 이 출판물은 많은 구도자들의 갈망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능엄경』에서 석가모니불과 문수사리보살, 관음보살은 관음법문이야말로 궁극의 해탈법문이며, 또한 말법 시대 중생들이 성불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법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CD에서 스승님은 이 주제에 관한 명쾌한 해설 외에도 ‘수행자가 신실함과 순수한 마음을 갖춰야 하는 중요성’, ‘인과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 ‘신통을 배우는 데 따르는 위험’, 그리고 ‘삼매에 들었을 때 보호력이 필요한 까닭’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강연을 펼치셨다.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

<중국어>

739 스승님의 화신

2002. 5. 12. 미국 플로리다 센터 스승님의 생신 경축행사



## 두 벌의 옷에 얽힌 이야기

청하이 무상사/ 1992. 6. 20. 미국 뉴저지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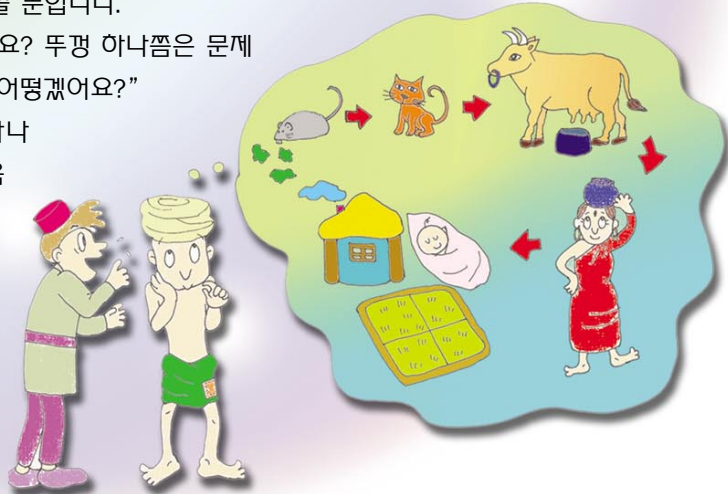
옛날 인도에 본래 쫄가슴의 정신을 갖고 신께 모든 것을 바친 한 쫄가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을 가릴 옷 한 벌밖에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냄비 하나를 가지고 물을 담고 요리도 하고 우유도 담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냄비의 뚜껑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뚜껑을 새로 사지 않고 옷의 한 귀퉁이로 냄비를 덮어 쓰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앉을 때마다 냄비 옆에 앉곤 했지요. “스님은 왜 냄비 뚜껑을 새로 사지 않으세요?” 하고 어떤 사람이 묻자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맹세하길, 지금 내게 무엇이 있든 그 이상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있는 것만 쓸 뿐입니다.”

“뭘 그렇게 융통성 없이 구세요? 뚜껑 하나쯤은 문제 될 게 없으니 새 냄비를 사는 게 어떨까요?”

“아니, 안 됩니다! 오늘 이게 하나 늘어나면 내일은 저것, 그 다음엔 또 다른 게 자꾸자꾸 늘어나게 될 겁니다. 어떤 스님처럼 말이지요...” 그러면서 그 스님은 다른 스님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진짜 있었던 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탁발을 하러 밖에 나가곤 했어요. 그는 허리에 간단한 천을 두르곤, 가려야 할 곳은 다 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중 웃음)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스님은 매일 밖에 나가 탁발을 해서 충분한 음식을 얻으면 돌아와 명상하곤 했습니다. 아주 멋진 나날이었지요. 또 그에겐 작은 움막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에겐 천이 두 개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빨고 하나는 입었는데, 때때로 외출할 때면 지붕 위에 세탁한 천을 널어 놓고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쥐가 와서 그 천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그러

면 그는 밖에 나가서 다른 천을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스님은 어찌할 줄 몰라 고민했습니다.

그때 이웃 사람이 충고했지요. “스님, 언제까지나 이렇게 천을 구걸할 순 없잖아요.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시지 그래요? 그럼 고양이가 쥐를 처리해 줄 테니 문제도 없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지금처럼 스님에게 계속 천을 드리겠어요?”

이미 수차례 구걸을 한 바 있는 스님은 이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괜찮겠군?’ 그리고는 고양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한 마리 갖다 줬습니다. 이제 고양이가 생기자



더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밖에 나가서 고양이에게 줄 우유를 구걸해야만 했으니까요. 그러자 한 마음씨 좋은 사람이 와서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언제까지나 고양이에게 줄 우유나 음식을 얻으려 밖에 나가 탁 발할 순 없으니, 그냥 소 한 마리를 키우세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우리는 스님께 우유를 드리는 건 괜찮지만, 고양이 먹을 우유까지 드려야 한다면 그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지만,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매일 우유를 드리진 않을 것이고, 그럼 스님은 고양이에게 스님 똥의 우유를 줘야 하겠지요. 그러니 소를 키우세요. 우리에게 암소가 한 마리 있으니 스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님에게도 먹을 우유가 생길 테니 정말 편리할 겁니다. 또 유청도 얻을 수 있어서 요리에 쓸 수도 있고 여러모로 편리할 겁니다.”

그들은 마침 스님에게 드릴 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공짜로 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들이 어슬렁거리고 다니니 그냥 한 마리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주인이 없거나 집을 잃은 소들입니다.

어쨌든 그 스님은 심사숙고 끝에 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소의 젖 짜는 일 같은 것을 해야만 했으며 밖에 나가 소에게 먹일 짚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는 스님이었기 때문에 그 일말고는 다른 방식을 몰랐지요.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히말라야 지역에는 풀도 많지 않았으므로 그는 짚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또 외양간도 지어야 했지요.

자,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의견을 내놨어요. “스님, 언제까지나 짚을 구걸할 순 없잖아요? 어느 누가 짚을 항상 주겠어요? 우리는 스님께 공양하는 건 괜찮지만, 스님의 소나 고양이 등등을 먹여 살릴 의무는 없지 않나요? 그러니 함께 지낼 사람을 구해 보세요. 아니면 결혼을 하든가요!”

이제 이 스님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땅을 어떻게 경작하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러자 마음씨 좋은 한 사람이 조언을 해줬어요. “농부 같은 사람을 들이세요. 아니면 농사꾼 출신의 여자와 결

혼한다면 땅을 경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주위에는 노는 땅이 지천으로 깔려 있으니 그 땅을 경작한다면 소에게 줄 짚은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옥수수나 밀 등 먹을 양식도 충분히 얻을 수 있지요.”

이제 그 스님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을 했지요. 그리고는 부인과 함께 농장을 일구었고, 또 자식이 생기자 아이도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을 모셔 오는 등등 온갖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사업’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의 스승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3년 전 강가의 허름한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던 모모 스님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그런 스님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은 물어 물어 그 스님의 농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모든 일이 단지 한 별의 여별 옷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그에게 옷이 한 벌만 있어서 그것만을 입었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입을 옷과 갈아입을 옷, 두 벌의 옷이 있었지요. 바로 그게 문제가 되어 그 모든 일이 일어났던 거지요. 이젠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의 스승이 돌아오자 그 스님은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 스승은 더 머물러 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훈계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수행을 잘하라고 당부했지 소, 개, 고양이,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리라고 하지 않았다.” 그 당시 그는 큰 농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사가 너무 많아서 농부도 많이 고용해야 했는데, 계속해서 확장하다 보니 농장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님이 되어 속세를 떠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큰 농장과 많은 가축, 부인과 자식들, 많은 고용인들을 거느린 큰 부자가 되어 버렸고, 농장은 점점 더 번창하기만 해서, 돈을 세고 추수를 감시하느라 너무도 바쁜 나머지 명상할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수행은 끝장난 거지요. 스님으로서의 일은 끝나고 그는 다른 직업을 갖게 된 겁니다.



우주의 유희를 통달한 완전히 깨달은 성인들로서는 세속과 멀리 떨어져 산속에서 조용히 은거하는 편이 훨씬 자유롭고 즐거운 것이다. 그러나 지구상의 수많은 중생들을 돕고 세인들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은 이 속세에 있기를 택한다. 이를 통해 성인의 입을 통한 가르침과 모범적인 행동을 조금이나마 접할 기회를 가지면서 우리는 수행자로서 세속에서 어떻게 우주의 대지혜를 운용하는지 배울 수 있게 된다.

##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묘수

침하이 무상사/ 1994. 4. 1~4. 홍콩 선삼 (원문 중국어)

비디오 테이프 No. 413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행을 많이 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삶을 좀더 편리하고 재미있게도 가꾸야 합니다. 최근에 나는 소를 길렀던 동굴을 아늑한 거실로 개조했습니다. 먼저 동굴을 깨끗이 치운 후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양탄자를 뿔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재료들은 모두 값싼 것들이며, 보통의 양탄자는 별로 비싸지 않으면서도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 뒤에 방석을 몇 개 놓으면 거기에서 명상해도 되지요. 이런 건 사치가 아닙니다. 꾸미는 방법만 알면 어디든지 아름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동굴은 원래 어둡고 건조하고 더러운 곳으로 가축을 기르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장소로 바뀌었지요. 이것도 삶의 균형을 잡는 한 방법입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 노릇을 하면서 삶의 균형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두뇌는 불평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동굴을 꾸미는 일은 내겐 아주 멋진 취미생활입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시자가 내게 말했어요. “스승님, 스승님은 요 며칠 동안 일도 너무 많이 하시고 밤엔 잠도 주무시지 않아서 많이 지치셨을 텐데, 왜 오늘도 밤새도록 벽난로를 만들고 계시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꾸했지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마 미쳐 버릴 거예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이것이 내가 생활 속에서 균형을 찾

는 방법입니다.

그 시자는 내가 하루종일 일을 해서 몸이 피곤할 것이며, 그동안 못 잔 잠을 보충하기 위해 사흘 밤낮으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일을 하는 게 내가 휴식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삶에 색다른 변화를 주니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때가 바로 내가 휴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매일 하는 일은 모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일 뿐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건 아닐 것입니다. 그 둘은 다르지요.

비록 나의 일이 여러분과 난민, 어려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때 나 또한 매우 행복하지만, 그런 일들은 그러한 상황과 다른 사람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일을 관장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누군가 쌀 2kg을 달라고 요청하면, 나는 그것을 가져다 줘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중생의 요구에 맞게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과는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삶을 균형 있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두뇌가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요.



스승님은 시멘트와 근처 개울가에서 주운 돌 조각으로 손수 벽난로를 만드시며 밤새 동굴을 새롭게 단장하셨다.

나의 영혼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두뇌가 싫어하는 거지요. 두뇌는 그러한 것에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휴식하는 방법이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녀는 내가 이미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나는 외국에 나가 강연하는 것 외에도 필리핀에 있는 난민들을 돕기 위해 달려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곤에 지쳤으면서도 밤을 새워 가며 왜 또 벽난로를 만드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자는 나를 아주 가엾게 생각했지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가 쉬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선 그녀에게 물었지요. “만일 당신에게 하루종일 거기 앉아 있으라고 하면서 내가 밥해 주고, 당신은 빨래도 할 것 없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면, 그런 생활을 견딜 수 있겠어요?” 시자는, “아니오, 견딜 수 없을 거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못 견디지요! 그래도 그녀는 자기 손으로 빨래를 하고 자기 일도 좀 처리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시간도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온통 시간을 다 쓸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나 개인의 기호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밤새 잠자지 않고 내 시간을 쪼개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 않지요. 낮 시간은 여러분을 위해 남겨 두므로 여러분이 나를 필요로 할 때면 언제나 있고, 또는 어떤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급한 서류가 도착하면 나는 즉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건들 틈새를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이나 밤에 잠자는 시간엔 해야 할 공적인 일도 없고 읽어야 할 서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자신의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내 개인적인 일을 합니다.

그러니 내게 왜 이런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그건 집착이 아닙니다. 나는 많은 나라의 센터에서 공사를 했지만 그 어디에도 살지 않습니다. 내가 디자인하거나 창작한 것들은 모두 거기에 남겨 놓아, 내가 갖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내가 그린 그림 같은 것들은 가지고 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그것들을 갖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대신 미아오리에 보내 장주들에게 특별한 소장 공간에 보관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림이 손상되지 않고 복제되어 대중들이 감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 그림들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도 나는 항상 다른 일로 바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돌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겐 그림을 그리는 책임만 있을 뿐이지요. 나는 그 그림들을 몇 번 본 다음엔 장주들에게 보관을 맡겨 둡니다. 가끔은 오랫동안 못 볼 때도 있어서 나도 내 그림이 보고 싶어집니다. 전에 내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가끔 그 그림들이 보고 싶어 포모사로 돌아가고픈 생각도 했습니다. (스승님 웃음) 그러나 그건 그냥 지나가는 생각일 뿐, 못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을 그리는 건 내겐 취미일 뿐 그로부터 이로움을 얻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내 그림을 소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나 자신은 아무것도 소장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동굴에서 완성시킨 그런 예술작품은 포모사로 옮겨 장주들에게 보관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이젠 그림과 다르니까요. 어떤 것들은 옮길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럴 수 없지요. 움직일 수 없는 작품들은 모든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



버려진 동굴이 스승님의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손길이 닿자 신선들의 동굴처럼 멋진 거실이 되었다.





도록 그냥 그 장소에 남겨 둡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소유하거나 보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요. 때로는 그런 일들이 일종의 휴식이 됩니다. 나의 다른 취미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내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결코 내가 이 동굴을 좋아해서 여길 개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난 여기 오래 머물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이 동굴을 갖고 어디로든 갈 수

도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수행에 정진하는 것 말고 자기 삶의 균형을 잡지 못하거나 혹은 이 속세의 맛을 좀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째서 스승님을 따라 수행을 하고 나선 속세의 맛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탓하고, 조용히, 몰래 여기로 다시 내려오겠지요. 그때 나는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 영화 이야기

### 꿈을 이룬 기쁨

제니퍼 우 사저/ 미국 텍사스 오스틴



영화 ‘마이클처럼(Like Mike)’은 고아원에서 자란 캘빈 캠프리지라는 흑인 소년의 아름다운 꿈과 신기한 경험을 다룬 코미디 영화다. 농구를 좋아하고 다른 고아들처럼 가족의 파스함과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는 캘빈은, 거기서 더 나아가 농구 선수의 가족에게 입양되어 농구 선수가 될 수 있길 소망한다. 그러나 고아원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캘빈보다 어린 아이들을 좋아해서, 캘빈의 꿈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캘빈은 어쩌면 세계적인 농구 스타인 마이클 조단이 어렸을 때 신었다고 추측되는 운동화를 얻게 된다. 신발 안에는 원래 주인이 사인한 ‘M. J.’라는 머리글자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마침 신발은 캘빈의 발에 맞춘 것처럼 캘빈에게 꼭 맞았다. 그 신발을 신고 나서 강마르고 왜소한 캘빈은 가볍게 점프해 농구공을 잡기도 하면서 농구 실력이 급속도로 성장해 마이클 조단과 필적할 만하게 된다. 이에 캘빈은 최연소 NBA 선수가 되고, 또 곤경에 빠진 팀을 승리로 이끄는 정신적인 지주가 된다.

원정 경기를 하는 동안 캘빈의 팀에선 (가상의) 농구 스타인 트레이시 레이놀드에게 캘빈의 지도를 맡기고, 그들은 같은 호텔 방을 쓰게 된다. 난생 처음 비싼 호텔에 머물게 된 캘빈은 흥분에 차 괴성을 지른 후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주문해 싹껏 먹는다. 트레이시는 처음엔 캘빈을 입양할 생각이 없었지만, 연습과 경기를 함께 하면서 점점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게 된다. 이런 관계는 점점 깊어져 부자간의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어 마침내 트레이시는 캘빈을 입양한다. 이렇게 해서 캘빈의 어릴 적 꿈은 결국 이루어지고 오랫동안 갈구해 왔던 아버지의 사랑도 얻게 된다.

캘빈의 놀라운 경험은 천신만고 끝에 스승님을 만난 동수들로부터 큰 공감을 살 것이다. 의지할 곳 없던 고아 캘빈이 마침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찾았을 때처럼 스승님을 만난 동수들의 기쁨은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 더 귀중한 것은 스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영원불변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사바세계에서 길 잃은 고아인 우리가 스승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만 한다면, 스승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하시며 우리를 천국에 있는 진정한 고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 심신에 미치는 명상의 이로움

패티 맥마흔과 데니 플레니건 동수 발췌/ 미국 오하이오 (원문 영어)

2002년 10월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평온을 가져 보자-바쁜 현대인을 위한 명상’에서 저자인 캐롤 크루코프(Carol Krucoff)는 명상의 실제적인 이로움에 대해 몇 가지 서술하였다. 작가가 사례로 든 레오나드 빌링은 펜실베이니아의 학원군(學院群)인 마운트 레바논의 배관공으로서 매일 명상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나는 혼자서 10개의 건물을 담당하며 하루 10시간에서 16시간 동안 힘들게 일합니다.” 배관 일은 고되고 사람들의 요구가 끝없이 이어지는 일이지만, 레오나드는 하루종일 평온한 모습으로 다니며 웃는 얼굴로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레오나드 빌링이 언제나 이처럼 침착했던 것은 아니었다. “레오나드는 40세에 이미 쓰러진 적이 있어서 언제든 재발할 수 있었지요.” 그의 아내인 버지니아의 말이다. 그는 유전적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집안에 태어난 데다(그 중 한 사촌은 40세에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고혈압이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굉장히 높은 상태였다. 빌링은 몸이 아프고 괴로워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경비를 부담하는 비전통적인 심장병 치료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거기엔 명상 치료과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또 심장병 치료 계획의 일환으로 운동과 요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었다. “거의 모든 걸 바꿨어요.” 현재 52세인 빌링 씨는 이렇게 말한다. “명상 때문에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명상으로 인해 보다 침착해지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었죠.”

미국인들은 명상을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이 아닌 그 이상으로 받아들인다. 레오나드 빌링처럼 그들은 심장질환이나 편두통, 저혈압, 만성적인 고혈압이나 암을 치유하려고 방책을 찾다가 우연히 명상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레오나드처럼 명상을 하도록 만들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서도 명상을 계속한다. 왜냐하면 명상 수행이 다른 생활 영역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러한 힘이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명상이 두뇌 활동, 그 중에서도 신진대사, 혈압, 호흡,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대뇌 변연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버드 의대의 심리학자 알리스 도머는 이러한 변화를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으로써, 그녀는 박사 논문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1년 동안 수술실에서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2분 간 간단한 호흡 명상법을 가르쳤다. 도머는 이렇게 말했다. “환자들은 불안감이 줄어들고 수술에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 또한 명상 후 환자들의 혈압이 낮아지고, 수술할 때 피를 적게 흘려 수술 시간이 짧아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미국의 기업들도 명상의 이점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많은 직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들로 인해 초조함에 빠지거나 정확한 생각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명상을 배우면 주의력을 집중시키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명상의 진정한 힘은 형식적인 수행으로 시간을 보내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완하면서 의식적으로 깨어 있는 명상의 정신을 다른 일상 생활에도 융합시키는 데에 있다.

표1: 2002년 7월에서 8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활동 지출내역 (단위: NT\$)

장 소	날 짜	활 동 내 역	금액	부록
타오웬	2002. 7. 6.	빈곤가정 뇌사환자 가족들에 대한 관심, 최신 거담기 1대 기증	6,825	A
미아오리	2002. 7. 10.	순직경찰 가족들에게 긴급성금 전달	50,000	B
타이난	2002. 7. 24.	타이난 밍더 개방교도소 방문, 재소자를 위한 영성 교양 세미나 및 명상법 지도 (동수 지원)	0	
타이난	2002. 8. 3.	타이난 시 환경보호국과 함께 골든 코스트 청소 활동(동수 지원)	0	
필리핀	2002. 8. 27.	필리핀 쿨리온 나병군도 측에 헌옷 750박스, 장난감 및 영성 관련 서적 193박스 전달(동수 기부), 운임료	58,304	C
말레이시아	2002. 8. 28.	말레이시아 국경에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들에게 헌옷 176박스, 22개 기부, 에텐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기부됨. (동수 기부)	0	
타이난	2002. 8. 28.	타이난 밍더 개방교도소 방문, 영성 교양 세미나 및 명상법 지도 (동수 지원)	0	
타이난	2002. 8. 29.	타이난 교도소 방문, 재소자를 위한 영성 교양 세미나 및 명상법 지도 (동수 지원)	0	
총 계	NT\$ 115,129			

표2: 2002년 7월에서 8월까지 포모사 내 극빈가정 돕기 지출내역(단위: 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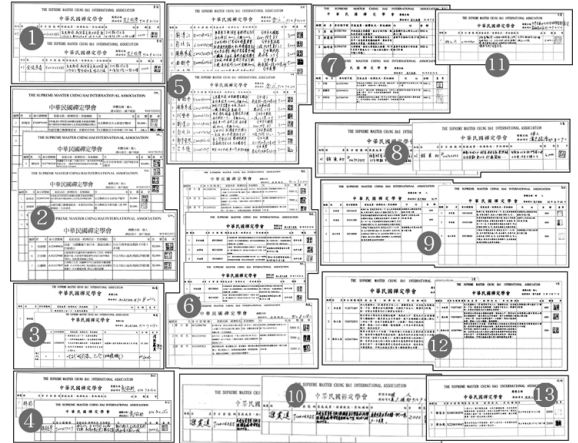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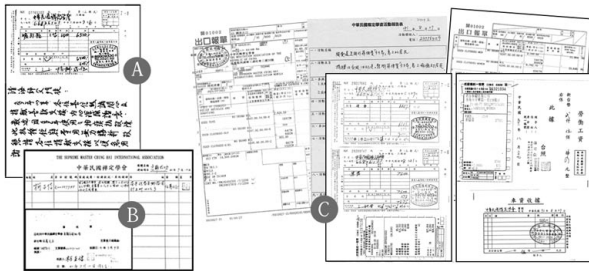
장 소	2002년 7월		2002년 8월		부 록
	가구 수	금 액	가구 수	금 액	
지룽	1	2,000	1	2,000	1
타이베이	7	18,000	7	18,000	2
타오웬	1	2,000	1	2,000	3
신쭈	1	3,000	1	3,000	4
타이중	7	23,000	5	17,000	5
난토후	6	23,000	6	23,000	6
지아이	3	8,000	3	8,000	7
타이난	1	4,000	1	4,000	8
까오슝	3	10,000	3	10,000	9
핑둥	1	2,000	1	2,000	10
화롄	1	5,000	0	0	11
타이둥	3	10,000	3	10,000	12
핑후	0	0	2	5,000	13
소 계	35	NT\$ 110,000	34	NT\$ 104,000	
합 계	NT\$ 214,000				

표1, 표2에서 보이듯이 2002년 7월과 8월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지출액은 총 NT 329,129(미화 약 9,680.26)에 달한다.



필리핀 나병 환자들에게 보내기 위해 포모사 동수들이 사랑이 담긴 옷과 완구, 영성 서적 등을 포장해 컨테이너에 싣고 있다.

## 영수증



발신인: 5315 필리핀 팔라완 쿨리온 자치시  
에밀리아노 마라시안 시장

전달: 쿨리온 시 사회복지발전소  
칸델라리아 리고돈 여사

2002년 10월 7일  
중화민국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기증자님께

저희 사무국과 쿨리온 시 주민들, 특히 최근 협회로부터 지원을 받은 주민들은 모두 여러분의 사랑에 큰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는 이번 9월 9일 세심하게 포장된 장난감과 헌옷 콘테이너를 2개 받았으며, 모든 물품을 곳곳에 골고루 분배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이 선물을 받고 큰 은혜를 느꼈습니다.

귀 협회 또한 은혜가 가득하시고 전세계의 다른 사람들을 돕는 활동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에밀리아노 마라시안 시장  
칸델라리아 리고돈

Mayer Emeline P. Macarayan, Jr.  
Municipality of Caltan,  
Caltan, Davao  
5315 Philippines  
October 7, 2002  
Municipal Association  
Republic of China  
Thru: Mrs. Candarina B. Rigozon  
The Municipal Social Welfare  
Development Office - MSWDO  
Dear Sisters:  
My office and the whole people of Caltan, most especially those who were (blessed) recipients of the donations you gave, would like to thank you so much for your benevolence.  
We received two (2) containers of toys and used clothing last September 9 in good hands. Everything has been distributed so far and our people felt they are blessed for all of these.  
May your Association be blessed, too, as you continue helping other people throughout the globe.  
Again I say, Thank you. *Very truly yours,*  
Emeline P. Macarayan, Jr./Candarina B. Rigozon  
Mayor







#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 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 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SM 경서조)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qyitv.com>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불어, 영어, 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http://www.Godsdirectcontact.com/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 다국어 지원)  
<http://www.godsimmediatecontact.tripod.com/> (미국-영어)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Real Audio 지원;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_istennel](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_istennel) (헝가리-헝가리어)  
<http://quanyin.narod.ru/> (러시아-러시아어)  
[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_2000](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_2000) (폴란드-영어, 어울락어)  
<http://www.contatodiretocomdeus.com.br> (브라질-포르투갈어)  
<http://www.khoda.fsnet.co.uk/godsdirectcontact> (영연방-페르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E-메일로 잡지를 받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 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 \*\*\*아프리카\*\*\*

★ <b>앙골라</b>	센터	244-92-338082 luandacentre@yahoo.com
★ <b>베닌</b>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b>카메룬</b>	두알라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b>가나</b>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b>케냐</b>	센터	254-72-603953 atmoske@yahoo.com
★ <b>남아프리카공화국</b>	케이프 타운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더반	27-31-368-7759 durba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27-82-754-3840 gkamgain@yahoo.com
★ <b>토고</b>	팔리메	228-4-410-948
	로메	228-2-222-864 smtogo@yahoo.com
		228-2-215-551
★ <b>우간다</b>	캠팔라	256-7764-9807 smchinghai@yahoo.com
★ <b>모리셔스</b>	포트 루이스	230-208-1758 smchmauritus@intnet.mu
		230-242-0462 smchmauritus@intnet.mu

### \*\*\*아메리카\*\*\*

★ <b>아르헨티나</b>	부에노스 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backhome25@hotmail.com
★ <b>볼리비아</b>	산타 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 <b>트리니다드</b>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b>브라질</b>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4424 55-91-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 파울로	55-11-5904-3083/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b>칠레</b>	라 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b>콜롬비아</b>	보고타	Mrs. Blanca Elizabeth Pedraza 57-1-6240217
★ <b>코스타리카</b>	산호세	506-2200-753 506-363-2748 lauracmesa@hotmail.com
★ <b>온두라스</b>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b>멕시코</b>	멕시코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eternalmaster2002@yahoo.com.mx
	멕시코 D.F.	52-55-5752-7472/ 5639-3506 kamel@igo.com.mx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cencer@adatel.net.mx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9-0897 mttycenter@starmedia.com
★ <b>니카라과</b>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vet@hotmail.com
★ <b>파나마</b>	센터	507-236-7495
	Ms. Maritza E.R. de Leone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 <b>파라과이</b>	아송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ec_py2002@yahoo.com.ar
★ <b>페루</b>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entro@yahoo.com
	리마	센터 51-1-4716472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Luis Rebaza 51-44-260871 larv@terra.com.pe
★ <b>살바도르</b>	산 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 <b>트리니다드</b>	아일랜드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tt.net.tt
★ <b>캐나다</b>	에드몬톤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Kingston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런던	센터 1-519-438-370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1@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phathung20@yahoo.ca
	Mr. & Mrs. Nai-Chi Hsu	1-450-647-4871
	Mr. Tuan Duong	1-613-565-0862 et323@ncf.ca
	오타와	센터 1-416-503-0515
	토론토	Ms. Diep Hoa 1-905-897-0650 hoadiep0723@yahoo.com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99@shaw.ca
	Ms. Sheila Coodin	1-604-439-6753 gycontactperson@yahoo.ca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nguyen2002@yahoo.com
★ <b>미국</b>	애리조나 :	센터 1-602-264-3480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goaz@hotmail.com
	Mr. Robert Jeffreys	1-501-253-8287 bobj@cox-internet.com
	아칸사스 :	
	캘리포니아 :	
	*로스앤젤레스	센터 1-909-674-7814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lin54@hotmail.com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샌디에이고	센터	saccenter.ca@usa.com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1-619-475-9891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success@coachdebra.com 1-704-535-3789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1-415-753-2922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1-650-988-6500	노스캐롤라이나 : 오하이오 :	Mr. & Mrs. Huynh Thien Tan Mr. & Mrs. Vu Van Phuong Mr. Gilbert Rivera Mr. & Mrs. Tran Kim Lam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1-937-746-3786 wisdmeye@aol.com 1-405-632-1598 LTRAN2292@aol.com
*산호세	Ms. Sophie Lapaire	Sophie.Lapaire@eng.sun.com 1-408-463-0297	오클라호마 :		
	Mr. & Mrs. Edgar Shyuan	Edgar-Teresa@worldnet.att.net 1-510-276-4631	오리건 :	Ms. Vera Looijenga	1-503-234-1416
	Mr. Loc Petrus	petrusl2k@earthlink.net 1-408-253-8516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Mr. Jim Su	SumaJim@aol.com 1-408-262-8233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Mr. James Kiet Le	thanhgiang1990@yahoo.com 1-303-986-1248	펜실베이니아 :	Mr. & Mrs. Diep Tam Nguyen	1-610-352-7787
콜로라도 :	Ms. Victoria Singson	torahi@ureach.com 1-941-458-2639	텍사스 :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플로리다 :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jdawu@yahoo.com 1-512-989-6113
*케이프 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Thaidbzad@msn.com 1-239-433-9369		Mr. Dean Duong Tran	1-214-339-9004
	Ms. Trina L. Stokes	TLHill@comcast.net 1-407-333-0178	*달라스	센터	DallasCenter@yahoo.com 1-972-395-0225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ekalbekim@yahoo.com 1-770-936-9926		Mr. Tim Mecha	1-972-517-5807
조지아 :	센터/ Bhiksuni Chan Mo	georgiacenter@hotmail.com 1-770-934-2098		Mr. Weidong Duan	1-972-206-2042
	Mr. James Collins	1-404-292-7952		Mr. Jimmy Nguyen	1-281-893-8300
	Ms. Kim Dung Thi Nguyen	1-808-735-9180	*휴스턴	센터	CHINGHAI_TX@sbcglobal.net 1-713-6652659
하와이 :	센터	hawaiictr@hotmail.com 1-808-988-6059		Ms. Carolyn Adamson	1-281-251-8812
	Mrs. Dorothy Kaomi Sakata	DorothySakata@aol.com 1-773-506-8853		Mr. & Mrs. Charles Le Nguyen	1-281-251-3199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caominhlamtran@hotmail.com 1-773-275-6134		Mr. & Mrs. Robert Yuan	1-210-558-6088
	Mr. Sang-Yoon Lee	ilovesuma@yahoo.com 1-317-293-5303	*샌 안토니오	Mr. Khoi Kim Le	1-703-941-0067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Duchanh@aol.com 1-502-695-7257	버지니아 :	센터	1-703-978-6791
캔터키 :	센터	kycenter2000@yahoo.com 1-504-483-3234		Mr. & Mrs. Hua Phi Anh	1-757-588-8468
	Mr. & Mrs. Nguyen Minh Hung	FNGUYEN@MAIL.STATE.KY.US 1-504-483-3234	*버지니아 비치	Mr. David Young	davidkyoung@hotmail.com
루이지애나 :	Mr. John L. Fontenot	jlfontenot@hotmail.com 1-978-436-9982	워싱턴 :		
매사추세츠 :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보스턴	센터	shinemound@earthlink.net 1-508-791-7316		Mr. Edward Tan	1-206-228-8988
	Ms. Gan Mai-Ky	1-978-957-7021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매릴랜드 :	Mr. & Mrs. Huan-Chung Li	1-301-933-5490			sumaemc@yahoo.com
	Mr. Nguyen Van Hieu	HughMDCenter@yahoo.com 1-248-370-2924	*와이오밍		
미시간 :	센터	smmicenter@yahoo.com 1-612-722-7328	★ 푸에르토리코		
미네소타 :	Ms. Quach Ngoc	quach001@msn.com 1-573-761-9969	카뮈	Mrs. Disnalda Hernana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미주리 :					
*제퍼슨	Ms. Mary E. Steck	MSteck5208@aol.com 1-573-368-2679	***아시아***		
*롤라	Mr. & Mrs. Genda Chen	gchen@umr.edu 1-402-483-4067	★ 포모사		
네브라스카 :	Ms. Celine Robertson	croberts@lps.org 1-702-242-5688	타이베이	센터	886-2-2375-7527 smchtpe@ms33.hinet.net 886-2-2375-6784
네바다 :				Mr. & Mrs. Loh, Shih-Hung	shloh@ndmctsg.edu.tw 886-37-221618
*라스베가스	Ms. Helen Wong	1-973-209-1651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724726
뉴저지 :	센터	c_newjersey@yahoo.com 1-973-335-5336	까오슝	Mr. Chu, Chen Pei	886-7-7534693
	Mr. Chang Sheng Chou	JohnChou@ymlusa.com 1-505-342-2252	★ 홍콩	Mr. & Mrs. Zeng, Huan Zhong	852-27495534
뉴멕시코 :	Mr. & Mrs. Nawarskas	anawarskas@hotmail.com 1-718-567-0064	연락인 사무실	센터	852-26378257
뉴욕 :	Mr. & Mrs. Zhihua Dong		★ 인도		
			봄베이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캄보디아	Mr. Ashok Sinha	trust_god@rediffmail.com	칼라룸푸르	센터	603-9287-3904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91-33-655-6741	연락인 사무실		klsmch@tm.net.my
		972-9-866-6881			6012-259-5290
		ya@bezeqint.net			klgcp@hotmail.com
★ 인도네시아					60-4-228-5853
발리	센터	62-361-231-040	페낭	센터	
		smch_bali@yahoo.com			
자카르타	Mr. Agus Wibawa	62-81-855-8001			
	센터	62-21-6319066			
		smch-jkt@dnnet.net.id	★ 몽골		
	Mr. Tai Eng Chew	62-21-6319061	울란바토르	Mrs. Nergui Buzmaa	976-11-364352
	Ms. Lie Ik Chin	62-21-6510218			zbadnaa@yahoo.com
		finance1@ueii.com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hai@cbn.net.id	★ 네팔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카트만두	센터	977-1-254-481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ahimsasb@indosat.net.id			
	Mr. Harry	62-31-594-5868			
		harry_1@sby.dnet.net.id			
마젤랑	Mr. Njo Kwat Gone	62-293-367-031	포카라	센터	977-61-28455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Mr. Bishnu Neupane	977-61-31643
		yudi_wartono@telkom.net			neupanebishnu@hotmail.com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Mr. Shiva Bastola	977-61-28255
육야카르타	Mr. Augustinus	62-274-588-105		Mr. Raj Kumar Lama	977-61-31413
		t.adianingtyas@eudoramail.com		마닐라 센터	632-842-8828
					manilach@hotmail.com
★ 일본			★ 필리핀		65-6741-7001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 싱가포르	센터	chinghai@singnet.com.sg
		truelove@nth.biglobe.ne.jp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다테야마	센터	81-470-209127	★ 스리랑카		
		tateyama_lg@yahoo.co.jp	콜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412115
도쿄	Ms. Yukiko Sugihara	81-3-3307-1643			lawrance@thefinance.lk
		call3840@pop07.odn.ne.jp	★ 태국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방콕	센터	662-674-2690
		y-plus@f6.dion.ne.jp			bkk_c@hotmail.com
★ 한국					66-1-8690636
	출판사	031-772-9250			66-2-5914571
		chinghai@unitel.co.kr			edasnlad@samsorn.stou.ac.th
영동	영동 센터	054-532-5821		Mr. Wu Peir Yuan	66-1-8248294
		houmri1@kornet.net		Ms. Siriwan Supatrachamnian	66-53-384128
서울	서울 센터	02-577-2158	치앙마이	센터	66-74-368329-30(c/o 155)
		quanyim@unitel.co.kr	하얏이	센터	66-43-378112
	유태인	02-795-3927	큰켄	센터	66-74-447224
	이지자	02-599-1701	송크라	센터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chinghaibusan@hanmail.net			
	송호준	051-957-4552			
	황상원	051-805-7283			
전주	전주 센터	063-274-7553	*** 유럽 ***		
		shc5824@hanmail.net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063-254-5824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신현창	032-579-5351		Mr. Shih-Tsung Lu	43-664-3909200
인천	인천 센터	032-244-1250			sound@gmx.at
	이재문	053-743-4450			
대구	대구 센터	chinghaidaegu@hanmail.net	★ 벨기에		
		053-633-3346	브뤼셀		oceandropjes@yahoo.com
	김익현	053-767-5338	★ 불가리아		
	한선희	053-856-3849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차재현	042-625-4801			oldruslan@yahoo.com
대전	대전 센터	042-254-7309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김수동	062-525-7607			chinghaiplovdiv@mail.bg
광주	광주 센터	061-394-6552	★ 체코		
	조명대	smgwangju@naver.com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054-821-3043			prague-center@chinghai.cz
안동	안동 센터	054-821-3043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김삼태	064-99-6113			Chinghai@chinghai.cz
제주	제주 센터	853-532231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 마카오	센터	macau_center@email.com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my@webspeak.dk
★ 말레이시아			★ 핀란드		
알로르 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헬싱키	M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조호르 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hoanghanh@jippii.fi
		supreme2@tm.net.my		Ms. Anne Nystrom	358-9-793902
					anne.nystrom@kolumbus.fi



# ★ 프랑스

파리 센터 33-1-4300-6282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ilancelot@celestialfamily.net  
Ms. Ngo Thi Huong 33-1-4376-1453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i@infonie.fr

# ★ 독일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berlincenter@hotmail.com  
Mr. Christian Bastwoeste 49-30-3470-9262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1-5809-816  
49-174-5265242  
ngoc-thao.nguyen@gmx.de  
dusseldorfcenter@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민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_source@t-online.de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 그리스  
아테네 Mr. Eric Raza 30-01-6923-133  
Razahidah@hotmail.com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vo-khong@wanadoo.nl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freemail.hu  
Mr. Lux Tamas 36-309-611994  
Ms. Dora Seres 36-1379-1924  
지울 Mr. Lehel Csaba 36-96-456-452  
clehel@freemail.hu

★ 아일랜드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bernardleech2003@yahoo.co.uk

★ 노르웨이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norwayqy@online.no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zak 48-91-4874953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quanyin\_pl@yahoo.com

로드츠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czakra@interia.pl

★ 포르투갈  
리스본 Mr. Joao Daniel Rosa simoes 351-21-082-5306  
lisbon\_center@yahoo.com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 슬로베니아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dbk@siol.net

★ 스페인  
마드리드 Mr. Gabriel Gasca Hernandez 34-91-5930413  
Madridcenter@yahoo.es  
Ms. Lidia Kong 34-91-5470366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Mr. Yu Xi-Qi 34-96-3347061  
valenciachinghai@yahoo.es

★ 스웨덴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moonasilver@yahoo.com  
are.sweden@post.utfors.se  
말뫼 Mr. & Mrs. John Wu 46-40-215688  
john.wu@bolina.hsb.se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Ms. Klein Ursula 41-22-3691550

# ★ 영국

임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m@ntlworld.com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412728  
l.wellers@ntlworld.com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Mrs. C. Y. Man 44-1895-254521  
pnl@matters19.freemove.co.uk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 \*\*\* 오세아니아 \*\*\*

# ★ 호주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de@hot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telstra.com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telstra.com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바이런 베이/ 노던 리버스 Mr. & Mrs. Ray Dixon 612-6689-1282  
rayandjulie@linknet.com.au  
캔베라 Mr. & Mrs. Khanh Huu Hoang 61-2-6259-1993  
smcanbra@cyberone.com.au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Mr. phong Minh Tand Do 61-3-9850-2553  
phongloveme@yahoo.com  
Mr. Alan Khor 61-3-9857-4238  
ckhor@bigpond.net.au

퍼스 센터 61-8-9242-1189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inet.net.au

Mr. Ly Van Tri 61-8-9244-7661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Mr. Hong Bo 61-2-97887588  
hongbo\_huang@hotmail.com

# ★ 뉴질랜드

오클랜드 Mr. Anton Toia 649-419-4470  
nzanton@yahoo.com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Mrs. Chang-Wu Wong 649-534-0986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hotmail.com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7-849-4442  
647-858-3355  
hamnzcont@yahoo.co.nz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타우랑가 Ms. Joy Daniels 647-544-5268

# 스승님의 예술 창작품에 담긴 신성한 힘



천위메이 사저/ 포모사 미아오리

## 두려움

나는 평소 시후 센터에서 스승님의 그림을 감상할 때면 종종 '두려움' 라는 그림을 힐끗 지나칠 뿐 별다른 관심을 주진 않았었다. 한번은 1999년 대 지진이 있는 후 한 사저가 '두려움' 을 구입했는데, 지진으로 인해 생긴 내면의 두려움이 계속 남아 있다가 이 그림을 본 후에 한꺼번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내게 말했다. 그녀는 정말 스승님의 그림이 신비롭게 느껴졌다고 한다! 그날부터는 나도 그 그림을 특별한 눈으로 감상하기 시작했다.

한번은 어떤 선이(禪二)에서 저녁 명상을 마치고 그림 전시장에 갔는데, 그곳은 스포트 라이트와 스승님의 만세등이 아우러진 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스승님의 그림과 만세등은 하나하나 특별한 아름다움을 뽐내며 마치 살아 있는 듯 생기가 흘렀는데, 배경으로 깔린 스승님의 연주 음악으로 인해 그 황홀함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

몇 달 전 나는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했었는데 그때 '두려움' 을 보곤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림 속의 꽃잎 하나하나, 잎사귀들 하나하나, 심지어 꽃병까지 두려움으로 인해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서야 나는 내가 정말 가져야 할 '두려움' 은, 도(道)에 대한 나의 믿음이 줄어들진 않았는지, 나의 예고가 커지진 않았는지, 잘못을 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등급이 떨어졌는데도 그



걸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것 이란 걸 깨닫게 되었다 '두려움' 은 그 순간 내게 많은 것들을 일깨워 주었고, 삶의 무상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을 잘 활용해 열심히 수행하고 해야 할 일을 해내지 못 한다면 스승님 앞에서 부끄러워질 것이란 점도 깨닫게 되었다.

## 광대



처음으로 '광대' 를 보았을 때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그러나 2년 전 선이(禪二) 행사에서 이 그림을 보고는 감동해 눈물을 흘렸다. 그 당시 나는 외롭고 낙담한 채 절망스런 상태여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광대' 를 바라보았다. 오직 성인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스승님만이 삶의 슬픔과 기쁨을 이 그림 안에 완벽하게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그림에서 광대는 아마도 가슴속에 많은 어두운 색깔을 숨기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그의 밝은 면을 보여 주려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스승님, 당신은 참으로 대단하시군요!"라는 것이다.





디자인: 청하이 무상사

## 가을과 함께 온 활동적인 최신 의상

가을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한껏 띄우는 해피요기 남성복·숙녀복이 새로 선보였다. 최근 유행하는 운동복과 레저복의 디자인이 주를 이룬 이 옷들은 편안하고 실용적이며, 젊고 세련돼 보인다. 다섯 가지 색상과 디자인, 모두 복고풍의 매력적인 줄무늬가 들어가 있다.

### 남성복

1: 베이지 바탕에 터키 블루와 올리브 그린 줄무늬가 들어간 폴로 셔츠. 전체 베이지 색 바탕에 칼라와 탄력 있는 소맷부리를 파란색으로 마무리한 것이 특징.

2: 밝은 노랑과 밝은 녹색, 사파이어 블루의 줄무늬가 흰색 칼라와 잘 어울리는 폴로 셔츠. 이 디자인의 역동적인 색상 배합은 눈길을 확 끈다.

3: 회색과 흰색, 밝은 녹색, 암녹색, 검정색, 하늘색의 미세한 줄무늬가 조합된 크루넥 티셔츠. 칼라와 소맷부리 끝을 밝은 파랑으로 처리해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준다.

### 숙녀복

1: 리버스 칼라의 V 네크라인 블라우스. 빨강과 오렌지색의 줄무늬가 들어가고 가슴 부위에 들어간 V자 모양의 오렌지 패턴에 단추가 장식되어 있는 우아하고 독특한 디자인. 파랑, 흰색, 빨강색으로 된 디자인도 있음.

2: 리버스 칼라의 V 네크라인 블라우스. 파랑, 빨강, 흰색의 줄무늬가 들어가고 가슴에는 칼라와 같은 파란색으로 매력적인 하트 모양의 포켓이 덧대어 있다.

3: 밑단이 둥글게 호를 이룬 이 옷은 장난기마저 엿보이며 활기가 넘친다. 빨강과 오렌지로 된 디자인도 있음.

